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뉴스레터 No. 19

발행인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담당교수 윤순진

학과조교 강태석 노초원 윤병석 이승지 임동민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박선미 이지원

E-Design 흑석동작업장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년 상반기 뉴스레터

환경대학원 신입 원장 인사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 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7 시민정원사

동문소식

- 8 동창회
- 9 동문동정

장년을 맞이한 이도원 교수 인터뷰

Special Session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4기 모집 안내



발행인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담당교수 윤순진

학과조교 강태석 노초원 윤병석 이승지 임동민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박선미 이지원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

| | |
|------------------------------|----|
| 환경대학원 신임 원장 인사 | 3 |
| 학교소식 | |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5 |
| 2. 행사/학술/연구 | 10 |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34 |
| 4. 교수동정 | 35 |
| 5. 석·박사과정 | 44 |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48 |
| 7. 시민정원사 | 55 |
| 동문소식 | |
| 8. 동창회 | 56 |
| 9. 동문동정 | 58 |
| 정년을 맞이한 이도원 교수 인터뷰 | 65 |
| Special Session | 70 |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4기 모집 안내 | 76 |

환경대학원 신입 원장 인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성 종 상

지금부터 44년 전에 '환경'이라는 이름을 내걸 정도로 우리 대학원은 한국에서 삶의 환경 문제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개발과 건설의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나 환경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우리 사회에 앞장서서 공급해 왔습니다. 산관학 각 분야에 활동 중인 우리 대학원 출신 동문들과 그 분들 업적 면면은 그 중요한 증거이지요. 그러나 개원 후 약 반세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야에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데다 외부에서 보는 환경대학원의 정체성이나 인식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도시, 환경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쌓고 있어서 이제 웬만한 모범사례나 현장을 전국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전문대학원으로서 우리는 지금 그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삶의 환경과 관련된 동시대의 크고 작은 이슈와 문제에 전문가 집단으로서 수월성을 갖춘 전문적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자면 전문가로서 밥 벌어먹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닌 장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탁월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래 몇 가지에 주목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학원의 5개 전공 -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학, 환경관리, 조경, 도시설계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 영역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여럿이나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다루고 만든다는 일은 분명히 의미도 크고 신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실무를 꽤 해 본 경험으로 보자면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원이 지닌 그런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감과 하는 일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를 원합니다. 서울대 내 다른 전문대학원들과 이번 가을에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여 준비 중인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둘째,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나 환경문제는 그 원인과 양상에서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이해하고 풀기 위한 처방도 여러 분야 간의 통합적이면서 융합적인 사고와 접근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자주 통합이니 융합이니 하는 말을 듣고는 있지만 정작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시도해본 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융복합의 성패는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배려와 존중, 그리고 공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주장만이 아닌 다른 이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그것이 나와 다름을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공감대를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주 만나 소통하는 것' 이것이 한국인에게 꽤 유효한 방안이더라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해서 저는 교직원, 학생, 동문 등 우리 대학원의 주요 주체들 간의 만남과 소통이 지금보다 한층 배가되기를 바랍니다. 밥이나 차 마시기 같은 편하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가능한 한 자주 갖기를 바랍니다.

셋째, 저는 우리가 지식의 배양을 넘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실용 학문으로서 우리 분야의 지식은 실천됨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론을 넘어 현장까지 아우르고, 지식함양에서 더 나아가 실천까지 힘써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움이 교실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읽어내고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대학원 주변, 서울대학교, 그리고 관악구와 서울시 등이 우리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좋은 현장이자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대학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학원은 도시와 환경 분야 한국 최고의 역사와 수준을 자랑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길러 왔고 교육, 연구, 실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앞선 모범을 제시해 왔습니다. 종종 잊고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양시켜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자긍심과 올바른 생각으로 잘 무장된 전문가야말로 이 시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원일 것입니다.

이상의 과제는 결코 만만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요는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려는가 라는 점이 관건이겠지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1.1 환경계획·설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 첨단혁신클러스터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환경계획·설계(이하 환계설) 과목은 환경대학원의 모든 석사과정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으로, 본 대학원 교수들의 강의와 더불어 특정 연구대상지를 선택한 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본 수업에서는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학, 환경관리, 조경, 도시설계 전공 석사 1, 2학기 학생들이 함께 조별로 과제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서울시 관악구, 강동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등 서울 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수원시, 김포시, 안산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와 협력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도시환경정책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 첨단혁신클러스터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수강생 92명이 9개의 조로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각 조별 지도 교수의 자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본 환계설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연구 과제는 3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 진행되며, 각 조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물은 책자로 발간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및 고양시민들에게 도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조성지역 현장답사

3월 29일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 대상지인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 대상지를 방문, 답사를 진행했다. 현장 답사는 대규모 장기 사업인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 예정 사업 부지를 살펴보았으며, 답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 인근의 기존 환경, 새로운 사업의 입지 여건 등을 조사·파악하였다. 학생 92명, 교수 2명, 조교 2명,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 3명, 고양시 관계자 5명 총 104명이 참석하였다.

답사는 K-컬처밸리홍보관,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단,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웨스턴등 등 일산 서구 상업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모든 답사 지역을 돌아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고양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연구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환경계획·설계 최종발표회



6월 7일 환경대학원 내에서 진행된 최종발표회에서는 본 교과목 담당인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를 비롯하여, 각 조별 연구 자문을 맡은 9명의 환경대학원 교수들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및 고양시 관계자 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 학기 동안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각 조별 지도교수의 자문과 고양시 측 협조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로 도출되었다.

각 조별 연구 결과는 6월 22일, 고양시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종 공개될 예정이며,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라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한 네 개 팀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상, 환경대학원장상, 연구우수상(2개팀)이 수여된다.

각 조별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연구자 | 연구 주제 | 지도교수 |
|----|-----------|---|-----------------|
| 1조 | 강상현 외 8명 | Play the smart park : 수상태양광 활용을 통한 활력 넘치는 호수공원 만들기 | 김세훈(환경조경) |
| 2조 | 김명조 외 9명 | 통일한국을 대비한 고양만들기 'Medical Cluster'를 통한 '평화 통일 특별시 고양'의 역량 강화 | 전상인(환경계획) |
| 3조 | 김정혜 외 9명 | 경의선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연구 | 조경진(환경조경) |
| 4조 | 신동윤 외 8명 | 한류친 정향천을 연계한 수로 조성 및 수변 공간 계획 - 습지도양의 물 순환을 위한 수로 설계 및 도시어메니티 중심축으로서 수로변 공간 계획 | 이석정(환경조경) |
| 5조 | 이태훈 외 9명 | 고양시 지속가능 청년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 이영성(환경계획) |
| 6조 | 강현미 외 10명 | 고양 '에너지' 청년 스마트 타운: '에너지 자족 타운' 구현을 위한 전략 연구 | Jige Quan(환경계획) |
| 7조 | 송의현 외 10명 | 드론 유니온: 나는 고양 | 홍종호(환경계획) |
| 8조 | 김주외 외 10명 | 고양시의 Connector, 문화공원 : 지속가능한 문화공원인프라 구축방안 | 서예례(환경조경) |
| 9조 | 최해인 외 9명 | 드라이브 할 Goyang : 단지 내 환경 친화적 스마트 교통(동선)계획 | 장수은(환경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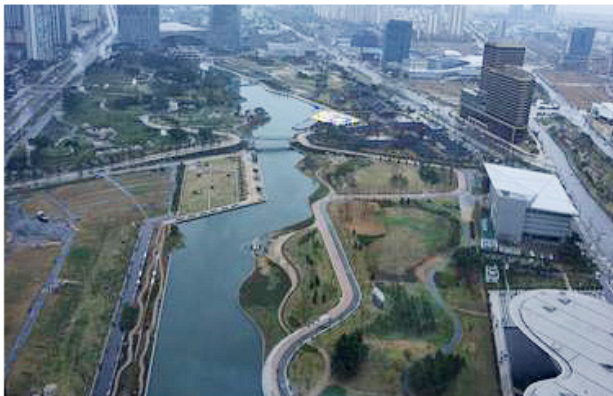
본 수업을 통해 90여 명의 환경대학원 각 전공별 학생들은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라는 사업과 그 사업 대상지를 현장중심에서 파악하고, 또 각자의 서로 다른 관점을 하나의 결과물로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와 협력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총체적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이 본 교과목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하겠다.

1.2 도시성장관리 : 송도스마트시티 관제센터(구 U-city), 서울로 7017

환경계획학과 이영성 교수는 도시성장관리 수업의 일환으로 2017년 4월 17일 송도스마트시티 관제센터(구 U-city)와 5월 29일 서울로 7017 서울역 고가 등지의 구도심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근 도시 분야의 최대 이슈인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에 관련된 현장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인천 스마트시티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모델로 신도시 설계 당시부터 스마트시티를 위한 인프라 설계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축된 CCTV 등 모니터링 인프라를 이용하여 실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답사 당일 IFZ 인천자유경제구역 홍보관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과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징과 비전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 실제 수집되고 있는 정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는 CCTV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로 교통과 방범에 관련된 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필요할 때는 경찰이 스마트시티 관제센터가 수집한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타운 재개발지구를 방문하여 스마트시티와 구도심을 직접 답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로 7017 답사는 현재 진행된 사업(서울고가 7017)과 보전된 역사지역(악현성당, 승례문, 명동성당), 쇠퇴지역(수제화거리)에서 이루어졌다. 강의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구도심 현장의 분위기와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느꼈다는 것에 이번 답사의 의미가 있었다. 또한 답사 지점을 수강생들이 직접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었다. 답사 후에는 수업을 통해 서울로 7017의 배경과 그 이전 사업이었던 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용편익 산출 배경에 대해 배웠다.



1.3 도시계획사 : 세운상가, 봉익동, 익선동

환경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는 2017년 3월 31일 도시계획사 수업의 일환으로 수강생들과 함께 서울 도심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지역은 세운상가, 봉익동, 익선동이었다. 세운상가와 봉익동 답사를 통해 르 코르뷔제의 빛나는 도시의 컨셉이 서울 도시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용도가 어떠한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익선동에서는 1920~30년대 한옥이 개발된 배경과 이 지역이 최근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등 도시개발사적 의미에 대한 김경민 교수의 현장 강의를 들었다. 또한 지역 경제활동중조사 및 주민들과의 인터뷰도 진행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2009년부터 익선동에서 전통찻집 '뜰안'을 운영하고 있는 김애란 대표가 지난 8년 간 직접 체험한 지역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1.4 철도교통론 : 도시철도 건설현장 답사

환경계획학과 장수은 교수는 철도교통론 수업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시간에 진행되었던 이론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철도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동감 있는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진접선 제001공구 공사 터널'을 방문하여 도시철도가 건설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소통 체계,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차량기지의 활용 방안,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한 질의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답사 1부에서는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현장 감리단으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생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직접 현장 터널을 방문함으로써 이론적인 내용을 생동감 넘치는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상하선 구분 지점을 직접 확인 및 복선철도의 건설 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후 공사의 추진 방향과 이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1.5 환경생태학 : 봉천동~서울대 출근길 생태학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는 환경생태학 수업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4일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봉천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일반인들이 출퇴근하는 일상적인 길을 걸으며 우리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태에 대한 이론바 <출근길 생태학>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답사는 환경생태학 강의 초반에 소개했던 '출근길 생태학'의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수강생들은 봉천동부터 관악산 관악사 삼거리 옆 국수봉 정상까지 큰 도로의 소음과 공해를 피해 '동네', '골목길'에서 학교까지 일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생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도원 교수는 동네 경관요소들의 최근 몇 십 년 동안의 변화를 설명하며, 아파트 단지에 조경된 나무들이 겪었던 과거, 관악구 봉천동 주민들이 가졌던 텃밭의 변화, 리모델링된 건물 앞 사라진 화분을 통해 살펴본 동네 사람들의 마음 등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했고, 그 연관성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수강생들은 '생태'에 대하여 생태학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악구 골목의 소시민과 초등학생들의 삶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임을 경험했다. 노련한 생태학자의 눈으로 본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어깨 넘어 배우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공간 속 생태학자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1.6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과 계획 : 제14회 서울환경영화제 참여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과 계획 수업의 현장 학습으로, 2017년 5월 22일 제14회 서울환경영화제에 참가하였다. 서울환경영화제는 2004년부터 매년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2017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렸으며, 24개국의 환경영화 51편이 상영되었다. 수업 현장학습을 통해 수강생들은 51편의 영화들 중 인류와 자연, 지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테라(Terra)'를 관람하였다.

학생들은 영화 관람이 끝난 후 영화에 대한 서로의 감상에 대해 나누며 인류와 지구, 인류 이외의 생명체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학생들은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는 인류의 욕심을 위해 다른 생명체가 희생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지냈지만 영화를 통해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 다짐했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학생들은 영화를 통해 지구가 인류의 것만이 아님을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게 됨으로써 책을 통해서만 알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

1.7 경관의 역사: 서울로 7017 공사현장 답사

환경조경학과 비베 콰이테르트 교수는 경관의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4일 서울로 7017 공사 현장을 답사하였다. 경관의 역사 수업은 동·서양의 경관이론 및 디자인 사례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하는 수업이다.

서울로 7017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말부터 진행된 사업으로서, 30여 년 전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된 서울역 고가도로가 노후화되어 안전성 문제로 폐쇄되면서 이를 보행로로 되살리고자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서울로의 설계는 2016년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Seoul Arboretum'으로 최우수상에 당선된 네덜란드의 조경-건축회사 MVDVR이 주도하였으며, 2년여에 걸친 공사를 거쳐 지난 5월 20일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이 날 답사는 서울로 7017 설계를 총괄한 MVDVR의 이교석 팀장의 안내와 해설로 진행되었는데, 초기 설계의 개념 및 시공 디테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로 7017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의 연결로이자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로 계획되었다. 설계 컨셉 단계에서부터 '회색 도시 안에서 나무들이 별처럼 빛나는 곳'으로 염두해 두었다. 시공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재료로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맛있는 콘크리트로 인해 오히려 식재가 돋보인다는 장점, 산업사회의 대표적 상징물로서 역사성을 대표한다는 점, 그리고 큰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구 서울고가도로의 구조상 최적의 재료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식물이 식재된 645개의 등근 화분은 유리섬유가 합성된 단단하고 가벼운 소재의 콘크리트 소재로 이루어져있다. 화분 안의 급수 시스템은 2, 3중으로 되어 있어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로의 핵심 설계 컨셉 중 하나는 서울역과 연결되는 입구 부분이었는데, 설계 개념이나 공간의 활용 면에서나 꼭 필요했던 이 개념이 문화재청 측의 이견으로 무산된 것은 설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한다. 향후 서울로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여권이 형성되어 이 계획안이 다시 재고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1.8 서식지관리계획, 환경생태학특강 : 오창과학산업단지 저영향개발(LID), 한택식물원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는 서식지관리계획, 환경생태학특강 수업의 일환으로 4월 24일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저영향개발(LID) 시범시공지역 및 한택식물원 답사를 실시하였다. 오창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실무자의 특강을 통해 단지규모에 적용된 LID 시설물들의 현황과 기능을 확인하였으며, 답사 후 저영향개발 관련 주제 토의를 하였다. 한택식물원에서는 환경조경학과 졸업생인 김은정 연구원의 안내로 식물원 내 식물상 안내와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국가 및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의 측면에서 식물원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행사/학술/연구

2.1 환경대학원 행사

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도시환경정책 연구 업무 협약

2017년 3월 22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성중상 환경대학원장과 양유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김인환 前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은 <환경계획·설계> 수업을 통해 진행될 프로젝트 대상지인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고,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청년다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스승의 날 행사 및 어울림 체육대회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대학원 학생일동



2017년 5월 17일 환경대학원 2층 P&C홀에서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각 전공의 학생들이 평상시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과 함께 전하였고, 춤과 노래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다. 교수님들은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의 까탈레나 공연, 교통학 전공의 그대에게 열창, 환경관리 전공의 붉은 노을 공연, 조경학과의 풋볼 하나 공연들을 보시며 매우 즐거워하셨는데, 잠깐이나마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스승의 날 행사 이후 곧바로 어울림체육대회가 관악사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어울림체육대회는 서로 힘을 뭉쳐야하는 종목(줄다리기, 미션/일반게주, 등글게 등글게, 짝피구)으로 구성되어 조경학과와 교통학 전공이 한 팀,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관리 전공이 한 팀을 이루어 서로 협동하여 대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날 체육대회의 추첨 상품으로 휴대용 빔프로젝터, 블루투스 스피커, 커피면 등이 주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2.2 BK21 Plus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1) 제25차 콜로키움

미세먼지 문제 - 얼마나 심각하고 어디에서 발생하나?

2017년 3월 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8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제25차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은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의 '미세먼지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어디에서 발생하나?'라는 강의로서, 약 2시간 30분에 걸쳐서 미세먼지 현황과 미세먼지 배출량 산출방법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콜로키움은 2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미세먼지 현황은 '미세먼지 정책비전과 위생성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산출방법은 '국내 대기오염 배출자료 현황과 개선'을 통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정책비전과 위생성 관리'는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5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전달되었다. 먼저, 국제 대기 질 평가보고서인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보고서와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대기 질은 '매우 안좋음'에 해당한다. 2년에 한 번씩 예일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EPI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종합 성적이 180개 국가 중 80위이고, 특히 대기 질(NO₂, PM_{2.5})에서 173위로 매우 낮은 성적이다. OECD 보고서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2016)'에서는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사망자가 '2010년 연간 약 300만 명에서 2060년 약 600~900만 명에 달할 것이며 이들은 PM_{2.5}와 오존 농도가 높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사망자가 2010년 100만 명당 359명에서 2060년 1,109명으로 대폭 증가 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국내 대기오염 배출자료 현황과 개선'은 네 개 부분으로 설명되었다. 먼저, PM 배출자료 현황은 국내외 초미세먼지 배출자료 현황을 기반으로 설명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자료를 처음 측정하여 공개하였으나, 생물성 연소나 비산먼지를 다루지 않아서 PM_{2.5}/PM₁₀ 값이 높게 측정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2009년도 PM_{2.5} 대기환경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에서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가 추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자료가 사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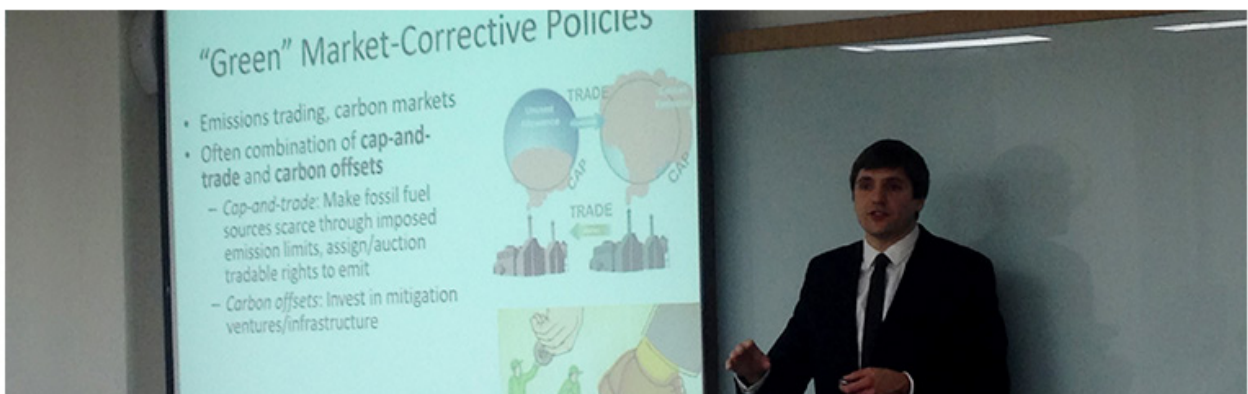


2) 제26차 콜로키움

Overcoming Ideology in Climate Policy - "Green" Markets, Technology, Growth vs. the Alternatives

2017년 3월 22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미국 Miami University 교수인 Ryan Gunderson 교수를 초청하여 제26차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발표주제는 'Overcoming Ideology in Climate Policy: "Green" Markets, Technology, Growth vs. the Alternatives'로, '녹색' 시장, 기술 및 성장에 가진 한계 등 자본과 기후변화 간의 모순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는 자연의 총 가치를 가격 가치로 측정함으로써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고, 기후변화의 구조적 원인을 지속시키고 대체접근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녹색 기술 역시 기술적 진보에 의존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지 아닌, 효율성 향상을 통해 자원 사용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기술 낙관주의는 기술의 잠재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은폐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녹색성장'이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기후에 관한 전 세계적인 대중의 참여와 심의 시스템의 확립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제27차 콜로키움

Energiebende - German energy and climate policy as part of a multi-level policy regime

2017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8호에서 열린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에는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경험에 대해 부퍼탈 연구소의 Manfred Fischedick 부소장이 강연하였다.

독일의 에너지와 기후 정책은 다양한 층위의 정책 레짐의 일부이다. 독일은 일종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동시에, EU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95% 감축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후쿠시마의 영향을 받아 2022년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고용 측면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다른 나라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나 그 감축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후보호법(Climate Protection Action)을 시행하고 장기 목표를 위한 참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송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2030년에는 좀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의 미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 시나리오들을 메타분석하여 공통점을 찾는 작업을 주로 한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40-47%의 에너지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Action Plan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이 시나리오들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수송 부분의 전력 소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커질 것이다. 독일에서 현재 가장 논의가 되는 것은 sector coupling이다.

여전히 도전들은 남아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전통적인 기술과 새로운 기술 선택 사이에서 경쟁력의 문제도 있다. 또 기반시설에 대한 도전과 투자, 자원, 이해관계자들, 정책의 문제도 있다. 사회적 동의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다. 또한 성공적 기술은 적절한 기관, 문화, 정책, 사회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 혁신도 어려운 도전이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있어서도 모든 수준의 기반시설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하였다.



2.3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장소와 문화연구회 세미나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연구실에서는 「장소와 문화연구회」 모임을 주관하면서 정기적으로 독서토론회와 이를 연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는 강남의 탄생(한중수·강희용), 헤테로토피아(미셸 푸코), 공간으로 세상읽기 : 집/터/길의 인문사회학(전상인)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와문화연구회의 1월 워크숍에서는 「강남의 탄생(한중수·강희용)을 읽고 토론하였다. 미개발 불모지에서 수도 서울의 '특별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이 책을 통하여 오늘날 강남의 힘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갖는 강남에 대한 인식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지, 급진적인 강남 개발로 인한 명암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명문학교, 학원과 같은 부동산과 교육의 측면뿐 만 아니라, 강남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미래의 강남 모습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았다.

2월 10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렸던 동계워크숍에서는 미셸 푸코의 라디오 강연 원고였던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독서토론이 있었다. 이 책에서 우리는 1966년 발간된 「말과 사물」에서 푸코가 언급했던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그 논의를 엿볼 수 있는데, 특히 후반부에 실린 레비나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축과 공간, 통치성과 자유에 대한 그의 사상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는 이 대담에서 헤테로토피아가 주어진 사회공간에서 발견되지만 다른 공간들과는 그 기능이 상이하거나 심지어 정반대인 독특한 공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들이 공간·도시, 그리고 도시계획에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4월 워크숍에서는 교수님의 최근 저작인 「공간으로 세상읽기 집·터·길의 인문사회학(전상인)을 읽고 토론하였다. 저자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제부국이지만 공간빈국에 살면서 행복과 공간 사이의 높은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집, 터, 길의 세 가지 공간차원에서 세상 읽기를 시도하며 공간 분야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프레임이 달라지고 발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공간부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4 교통학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제26회 교통연구세미나

2017년 4월 8일 제26회 교통연구세미나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6호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그 역사의 전통을 이어온 교통연구세미나는 한 학기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와 교통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 공존시대의 교통 전망과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제24회 및 25회 교통연구세미나에서 다루었던 자율주행차량 관련 토론보다 더욱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1부에서는 P&C홀에서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의 연구과제 3편과 개인논문 8편 등 총 11편의 포스터를 게시하여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임영태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를 좌장으로 자율주행차량 도입 이슈에 대한 팀별 주제토론이 진행되었다. 네 개의 팀은 각각 자율주행과 통행행태 변화(부제: 자율주행차량 도입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율주행차량 전용도로(부제: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이 필요한가?), 자율주행과 안전(부제: Freedom of Driving & Safety), 자율주행과 법제도(부제: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한 법제도적 변화는?)를 주제로 하여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교통 전문가로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포스터 발표와 주제토론이 마무리 된 후, 우수논문 2건과 우수토론자(팀)가 선정되어 시상식이 이어졌다. 우수연구 포스터에는 '버스 운행 이력자료를 이용한 정류장 간 버스통행시간 예측'을 발표한 이종우 석사과정과 '고속철도 개통 후 빨대효과 분석 : 대구와 광주를 사례로'를 발표한 전서희 석사과정이 수상하였다. 우수토론자(팀)에는 'Freedom of Driving & Safety' 토론을 발제한 3팀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2) 제42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대체연료차량의 충전입지 결정 분석방법론 (Refueling Locations for Alternative Fuel Vehicles: Models and Applications)

2017년 03월 1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국내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은 서울연구원에 재직 중인 고준호 박사의 대체연료 차량의 충전입지 결정 분석방법론에 관해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되어 환경대학원 외에 교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고준호 박사는 대체연료 차량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설치하여 최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의 입지 결정방법론은 크게 p-median, maximum covering, set covering, p-centre 방법론 등 네 가지이며, 고준호 박사는 각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 장단점, 연구 결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모델의 목적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건설비용의 최소화, 사용자 범위의 최대화 등 각 연구에 따라 다양함을 설명하였다. 충전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얼마나 자주 충전하는가(How often), 언제 어디에서 충전하는가(When and where), 특정 충전소를 선호하는가(Where: special round trips), 충전 수준(Battery level) 등을 언급하였다. 고준호 박사는 이러한 행태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델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향후 충전입지 결정 분석 연구는 실제 수요 변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배터리 소모를 좌우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대체연료 차량 운전자의 행태를 반영하고, 공급에 따른 수요 변화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자인 한상진 박사는 충전소의 유형 및 수요는 기술의 발전과 연관이 있으므로 차량의 운행 range가 커지면서 입지의 자율성이 커지고 있음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입지 선택(Location)에 대한 변수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장애지역에 대한 요소(예: LPG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설치하기에 반발이 예상됨)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상당한 정확도를 확보하여 운전자의 충전 행태, starting point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충전소의 입지 결정을 효과적으로 supporting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성훈 박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public charger, private charger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고준호 박사는 충전 인프라는 공공의 관점에서 초기 setting 및 수요 확대를 위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후변화가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체연료 차량의 수요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충전소 입지 결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3) 제43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다중 버스정류장의 시내버스 노선 최적 배분 연구

2017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국내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은 부천시청에 재직 중인 김경희 박사의 학위논문인 미시적 운행자료를 이용한 다중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노선 최적 배분 연구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경희 박사는 연구의 배경으로 현재 버스정류장 노선 운영의 의사결정기준 및 이용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집시스템(BIS, 영상 및 루프 검지기 등)을 통한 미시적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어지는 2장은 선행연구 고찰, 3장 용어 정리, 4장 정류장에서의 개별 버스 운행 특성 분석, 5장은 휴리스틱 접근법에 따른 노선 배분, 6장은 최적 노선 배분 모형 연구, 7장은 모형 검증 및 평가, 8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도출로 구성된다. 본 콜로키움은 방법론 및 분석 결과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토론자인 신성일 박사는 연구가 실제 사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 노선 배정을 설득하는 과정을 본인이 주도한 것인지 질문하였다. 김경희 박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환승시설 용역과정에서 담당자로 참여하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 과정에서 직접 교통 전문가로 참여하여 노선 배정을 위한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해당지역은 평면에서 사고가 연 20건 이상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적정 노선 배정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약간의 지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용량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때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답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태안 교수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최적화 연구가 아니라, 실제 사업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한 것이 좋은 연구의 배경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중버스용량을 도출을 위해 다양한 통계방법 등을 시도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한 점이 좋았다고 하였다. 다만 분포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분포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하였다.

연구는 초(sec) 단위로 개별 버스 단위의 운행 패턴 분석 및 노선 배분 문제에 대하여 ITS 기술과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를 제시하였고, 일반적이며 관행적인 정류장에서의 노선 배분 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승내 환승시설을 시작으로 전국에 23개의 환승시설이 확대 운영될 계획인데, 효율적인 환승시설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연구였다.



4) 제44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Python을 이용한 도시성장 GIS 모델링과 지속가능한 도시수자원 이용계획

제44차 콜로키움에서는 Python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성장 GIS 모델링과 지속 가능한 도시수자원 이용 계획을 조망하였다. 본 콜로키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파트로, 'Python Scripting in ArcGIS'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도시 성장을 예측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Python 언어를 기존의 ArcGIS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파트는 'GIS-Based urban growth modeling for sustainable urban water use'로, 도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수자원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는 미국 Atlanta 광역권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강연자는 세미나 중간에 각 파트별로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 주며, Python의 이론과 실재를 적절히 활용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특히, Python 언어를 실제로 활용하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2.5 환경관리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서울환경포럼 춘계 학술세미나

2017년 5월 20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조경두, 환경 86,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년 춘계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서울환경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 전공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서 학술교류 증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춘계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서울환경포럼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평가 받으면서 새정부 출범 후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강을 다시 흐르게 하고 사업의 책임을 규명하며 법제도를 바로잡는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들이 새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먼저 어떻게 4대강의 흐름을 되살려 생명을 살릴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였다. "녹조로 신음하는 사대강,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세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김정욱 명예교수,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서울환경포럼 조경두 회장을 포함한 총 40여 명의 환경관리 전공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이 날 포럼은 김정욱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4대강 사업 재평가와 자연 복원"을 시작으로 총 2개의 발표와 회원들의 사전 질문을 활용한 오픈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재현 교수(안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댐과 보로 막혀있는 강물을 어떻게 다시 흐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현정 동문(환경 03, 가톨릭관동대 보건환경학과 연구교수)은 "4대강 사업이 바뀌버린 시스템 - 금강 공나루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금강 공나루 지역을 사례로 4대강 사업 이후 강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악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보여주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지난해 추계토론회에서부터 도입되어 좋은 반응을 보였던 오픈 토론 방식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오픈 토론은 사전에 회원 및 포럼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받아 추려진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참석자가 자유롭게 질문 및 답변을 하는 오픈형 질의 응답 방식이다. 송동하 동문(환경 91, 스마클(주)대표이사)의 사회로 지정토론자 백경오 교수(한경대 토목공학과), 이석호 동문(환경 87,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철재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 생명외강 특위)의 토론이 진행된 후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와 환경대학원 동문 및 재학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포럼은 뜨거운 열기 속에 예정된 시간을 넘겨 4시간 이상 진행된 후 마무리 되었다.



2) 이동수 교수 연구실(POPs) 특강: 나노물질의 환경 중 영향성 평가 연구 동향

POPs 연구실(이동수 교수, 환경계획학과)에서 개최한 특강은 2017년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82동 205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나노물질의 환경 중 영향성 평가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 아래, 안정성평가연구소 황유식 선임연구원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나노기술 발전으로 인한 나노물질의 환경 중 노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그 영향성 평가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나노물질을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적용하여 관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특강을 통해 나노물질의 환경 중 거동에 관한 독성 및 노출 평가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파악하고, 향후 연구에 적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10여 명의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뒤 특강을 마무리 하였다.

2.6 도시·환경·교통 융복합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융복합 전공 집담회

서울시민의 통근수단선택 특성분석 (Factors Affecting Seoul Commuters' Mode Choice)

도시·환경·교통 융복합 연구실에서는 2017년 2월 27일 서울연구원 고준호 박사를 초청하여 '서울시민의 통근수단 선택 특성 분석(Factors Affecting Seoul Commuters' Mode Choice)'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이 '서울 서베이'에 있는 데이터만을 이용한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나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에서 주로 이용되는 예측 모형 모델인 'Classification Tree(Decision Tree)'와 '다항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였다. 그 결과 이동시간, 소득, 버스 정류장의 개수, 성별, 주차장 등등에 따라 통근자들이 대중교통과 자가용 중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먼저 높은 소득의 통근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중간 소득의 통근자는 성별, 거주 기간, 버스 정류장 개수, 주차장 등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근자의 세부적인 특성들에 따라 교통수단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고준호 박사는 교통 수요를 추정할 때 이처럼 통근자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추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표 이후 해당 연구의 통계적 분석방법, 결과 해석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들에 대해 고준호 박사의 답변이 이어졌고, 또한 '서울 서베이' 데이터의 유용성,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여러 모로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2.7 환경조경학과 행사/학술/연구

1) Computational Design Strategies For a Warming Climate : Melbourne+Seoul Workshop

환경조경학과 이우미교수 연구실에서는 'Computational Design Strategies For a Warming Climate: Melbourne+Seoul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워크숍 참석자에는 이우미 교수(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 김정운 소장(오피스박킴), Heike Rahmann(RMIT University), Julian Walliss(University of Melbourne), Wendy Walls(University of Melbourne)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기후변화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에 대한 연구를 서로 교류하고 논의하였고,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시,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고민을 논의하였다.

2) City Game(예술가의 도시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환경조경학과 이우미 교수 연구실에서는 '시티게임, 예술가의 도시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5월 19일 환경대학원 82동 205호에서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자인 감성놀이터 최석영 대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미디어 아트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와 미디어 파사드, SNS의 활용, VR의 콘텐츠 활용으로 도시재생에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사례를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3)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도시재생 워크숍: Living Lab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의 도시재생스튜디오와 이석정 교수의 스튜디오의 조인트 프로그램으로써,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대학교와 다름슈타트대학교의 도시재생 워크숍인 Living Lab이 진행되었다. 약 40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대상지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과 말미마을 주변을 도시와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계를 통해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 워크숍은 대상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금천구 도시계획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세훈 교수, 이석정 교수, Mathias Lengfeld 교수와 Dita Leyh 교수의 지도 하에 진행되었다.



4) Bottom-up 공공프로젝트 : Zzaturi City

환경조경학과 서예례 교수 연구실과 서예례 교수가 진행하는 환경조경학과 환경설계스튜디오 수업에서는 바텀업 공공 프로젝트의 모형을 실험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사이트에 가상 설계계획 제안에 그치는 스튜디오 형식 대신, 실제 공공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기획, 제안, 실현해 보는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펀딩까지 필요한 조사, 분석, 프로그래밍, 사업 기획, 예산 유치, 홍보, 출판, 편집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는 서울시 관악구를 대상으로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실태 조사, 분석이다. 자투리 사유지, 혹은 사유지, 공유지 지적도 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부동산 시세조사 등을 통해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유형을 맵핑하고 분석한다. 이 단계는 연계 가능한 지역단체들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설계, 기획이다. 필지 유형에 따른 공공 공간 프로그램, 시설 프로토타입을 제안, 설계한다. 예산 책정, 일정 계획, 홍보 효과 등 다양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 준비를 한다. 3단계는 펀드레이징이다. 크라우드 펀딩, 기관 지원 등 펀드레이징을 위한 홍보물 제작,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사업 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방문, 혹은 초청하여 실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네 번의 특강을 가졌다. 세부 특강은 아래와 같다.

Public Developer(공공 디벨로퍼)

어반하이브리드 이상욱 대표님을 모셔서 'Public Developer' 라는 주제로 3월 24일 환경대학원 82동 405호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에서는 공정한 개발을 통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개발들을 어떻게 공유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고, 자원들을 분배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이후 서울혁신파크 답사를 통해 공공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Social placemaker(소셜 플레이스 메이커)

어반소사이아티 양재찬 대표는 'Social placemaker' 라는 주제로 3월 31일 환경대학원 82동 405호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도시 내의 유휴공간 개발, 마켓플레이스 재생,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커뮤니티 공간디자인, 공유지 활성화 등, 업그레이드 방식의 공간 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분야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Housing cooperative(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주택 임소라 이사장을 초청하여 'Housing Cooperative'라는 주제로 4월 21일 환경대학원 82동 405호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도시 내 주거의 높은 보증금,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비영리로 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운영하며 주택 문제를 푸는 새로운 모델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SHARE-US (공유공간플랫폼)

선랩 건축사무소 현승헌 대표는 'SHARE-US' 라는 주제로 4월 28일 환경대학원 82동 405호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수성을 가진 대학동 고시촌에서 1인 가구 주거 형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거 실험모델인 'SHARE-US' 프로젝트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5) 저명인사 초청 특강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 연구실에서는 1학기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일본 교토가쿠엔대학 Yukihiro Morimoto 교수 초청 특강

3월 20일에는 일본 Kyoto Gakuen University 교수 / Kyoto University 명예교수인 Yukihiro Morimoto 교수를 초청하여 'Green Infrastructure Solutions in Satoyama areas'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Morimoto 교수는 일본 녹화공학회 회장, 국제경관생태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송영근 교수의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현재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레인가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강연 후에는 연구실 워크숍을 개최하여 모든 연구실 멤버의 연구내용 발표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지속적인 교류의 대해 논의하였다.

삼아항업(주) 장영운 박사 초청 특강

4월 7일 삼아항업(주)에서 공간정보 콘텐츠 개발담당 장영운 박사를 초청하여 '지형공간정보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삼아항업(주)는 우리나라 유수의 항공측량회사로 항공사진 및 LiDAR측량을 통한 지형공간정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강 후 연구실 워크숍을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천안시, 칠보산학술림 등에 대한 자료 및 연구성과 교류를 실시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확인하였다.

일본 교토대학 Shozo Shibata 교수 초청 특강

5월 12~14일에는 일본 Kyoto University 지구환경대학원(Graduate School of Global Environmental Studies)의 Shibata Shozo 교수를 초청하여 2박 3일 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Shibata 교수는 현 국제경관생태공학회(CLEE) 회장, 일본 녹화공학회 회장, 일본 조원학회 부회장 등 생태조경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12일에는 'Transition of the idea: Nature Restoration and Creation in Japan'이라는 주제로 일본 생태복원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고, 13~14일에는 워크숍과 현장답사를 통해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계획을 주제로 3년간 진행 중인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보고와 강남구 일대의 현장시찰을 통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6) 2017학년도 1학기 환경조경학과 과제전

6월 17일 토요일 14시부터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는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동안 수업에서 진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과제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과제전에서는 커뮤니티계획과 설계(지도교수 조경진), 조경공간형태설계 스튜디오(지도교수 이유미), 광역조경계획(지도교수 송용훈), 도시재생스튜디오(지도교수 김세훈), 환경설계스튜디오(지도교수 서예례), 도시설계스튜디오1(지도교수 이석정) 등 6개의 스튜디오 수업과, 조경공학워크샵(지도교수 이유미), 경관체계분석 세미나(지도교수 W.Kuiter), 서식지관리계획(지도교수 송영근) 등 3개의 이론 수업 결과물을 총 63개가 전시되었다. 이번 과제전은 지금까지 전시회중 가장 많은 작품수로 글로컬홀과 유리방에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도 지난 행사에 이어, 실무에 계신 동문선배님들이 참여하여 우수설계 크리틱을 진행했으며, 대상에는 환경조경학과 김명조(석사학기)의 Finding the lost sidewalk(도시재생스튜디오), 최우수상에는 환경조경학과 임혁위(석사2학기)의 AirPlay(환경설계스튜디오), 환경조경학과 가브리엘라, 이주경, 손희정의 공원소외지역을 소외시켜라(광역조경계획) 우수상으로는 도시설계협동과정의 김주연, 민대희의 Malmi Village Master Plan(도시설계스튜디오, 도시설계협동과정)과 환경조경학과 Jessica Barahona(석사2학기)의 Red Bone Park(조경공간형태설계스튜디오)가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 특별상으로 환경조경학과 이예린, 이찬종의 멈춰진 기억을 고쳐드립니다(커뮤니티계획과 설계)이 상금과 상장을 민방식 환경조경학과 수석동문부회장(석사88)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번 심사에는 민방식(석사 88), 안승홍(석사94), 정수진(석사95), 김지업(석사95), 진린(석사95), 윤상준(석사97) 한기홍(석사01), 이규원(석사01), 정혜진(석사01), 고우용(석사04) 김용국(석사 07), 김순기(석사08) 동문들이 참석하여 주었다.



2.8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학술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석준(박사과정)**과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4~8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17 AAG(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Annual Meetings에서 "Urban regeneration strategy using regional resources: A comparison study of Seoul and Singapore"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가리봉동의 조선족 밀집지와 싱가포르 리본인디아 지역의 인도계 커뮤니티를 비교하여, 대도시 내 외국인 밀집지에서 자생한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지역재생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지은(박사수료)**과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4~8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17 AAG(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Annual Meetings에서 "Dejavu-1920's Seoul resembles the late 1940's Levittown"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1920년대 경성에서 진행된 도시형 한옥의 개발과 미국 Levittown의 주택 개발을 비교하였다. 특히 포디즘(Fordism) 관점에서 두 도시의 개발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조성문(석사과정)**은 2017년 1월 4~7일 북경대학교에서 열린 The 9th SNU-PKU Environmental Workshop에서 "The Co-living phenomena in Seoul"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인 가구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셰어하우스가 증가 현상을 분석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셰어하우스를 대상으로 입지 패턴과 행정구 및 행정동별 1인 가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슬기(박사과정)**는 2017년 1월 4~7일 북경대학교에서 열린 The 9th SNU-PKU Environmental Workshop에서 "The regional study on the east-northern area of inner city wall of Kyung-sung from 1900's to 1930's"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 한양 도성 안 지역의 변화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내 기반시설들에 의해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았다.
- **환경관리 전공 조유리(박사과정)**, **배소연 박사(튀르츠부르크 대학교)**,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41(2)에 "Effects of vegetation structure and human impact on understory honey plant richness: implications for pollinator visit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하층 식생 구조와 인간 활동이 밀원식물 풍부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기은(박사과정)**과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5월 7~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rope SETAC (Society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에서 "Development of a dynamic model(SWNano) to assess the fate and transport of engineered TiO2 nanoparticles in sewer networks"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TiO2 나노 입자들이 생활 소비재로부터 가정 하수로 방출된 후 하수관 내에서 어떠한 거동의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시공간에 따라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는 다매체 모형을 개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장리아(박사과정)**과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5월 7~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rope SETAC (Society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에서 "Development of the IIAQ-CC model to asses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indoor air quality"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 공기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내 모형을 개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이승철(석사과정)** 외 3인과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5월 7~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rope SETAC (Society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에서 "The Role of Landscape Gradients on Dynamics of Stream Carbon"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울 도림천과 광양의 광양 동천을 대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의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하천 내 각 탄소 종 농도와 광화학적 특성 변화를 비교하여 도시화와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 전공 권아영(석사과정)**은 2017년 5월 7~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rope SETAC (Society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에서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the multimedia distribu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nd polychlorinated dibenzo dioxins/furans"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되는 화학물질들의 다매체 간 분배에 집중하여, 다매체 모형을 통해 예측·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조시은(박사수료)**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5월 국제저널인 Habitat International Journal 66권에 "Measuring urban diversity of Songjiang New Town: A re-configuration of a Chinese suburb" SSCI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신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단조로움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자 송강(Songjiang)에서 활력도(Vitality) 및 공평도(Equity)를 포함한 주거 및 사회의 다양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원세형(박사수료)**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5월 국제저널 Cities 67권에 "Mobili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A comparison of travel patterns and urban spatial use between migrants and the original residents of Danang, Vietnam." SSCI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guyen Tat Thanh Road의 재개발이 기존 주거지역의 도시 경관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제현지(석사과정)**,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5월 26~29일에 중국 북경의 칭화대, 북경대, 북경 산림대에서 열린 CELA(Council of Educators in Landscape Architectur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dscape Architecture Education에서 "Parametric Environmental Analysis Method Using Rhino and Grasshopper with Plug-in Programs: case study of Bogwang-dong in Seoul, Korea"를 발표했다. 본 발표에서는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라메트릭 환경 분석과 기존 조경의 사이트 분석 방법을 비교해 보고 조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Han-Yiwen**(박사수료)는 2017년 4월 4~8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17 AAG(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Annual Meetings에서 "Mapping and quantifying variations in ecosystem services of urban green spaces: a test case of carbon storage at a district scale in Seoul(1975-2015)"의 제목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Yiwen Han**(박사수료), **Yingnan Li**(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5월 26~29일에 중국 북경의 칭화대, 북경대, 북경 산림대에서 열린 CELA(Council of Educators in Landscape Architectur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dscape Architecture Education에서 "The process of slums formation in a metropolitan fringe based on land-cover/use change dynamics detection" 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실시하였다.

2) 국내학술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제현정**(박사수료)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20권 1호에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2000년-2015년 동안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령층을 7개로 구분하여 연령층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유형별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유형화를 위해 연령층별 인구증감률, 인구비중, 인구비중변화, 합계출산율, 소멸위험지수 등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간 유형별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이 상당히 이질적임을 보여주었고, 향후 유형별 맞춤형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슬기**(박사과정)와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서울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서울학연구』 67호(2017년 6월호)에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 동부 지역의 상업도시화 과정을 재해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상업도시화 과정 속에서 현재의 혜화동·명륜동 일대 거주민의 상인계층으로의 변화, 지역 내 시장 형성이라는 상업적 변화를 본 도시사 연구이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현지**(박사과정)와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국토연구 92권 3월호에 "금융위기 이후 자가·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자산효과"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산효과와 가설과 공통적인 가설 가운데 어느 것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더 적합한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기간에 걸쳐 주택가격 상승은 가구의 소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부채 자체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하지만, 주택가격 변화에 대해 부채 가구의 소비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진언**(석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의료서비스접근성을 고려한 노인 주거입지 수요추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접근성 잠재력과 노인의 주거입지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분석한 것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토대로 주거입지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노인의 주거입지수요의 공간구조 변화를 예측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형우**(석사과정)와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혁신도시 지역특성 및 이전기관 조직특성이 가족동반이주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도시의 초기이주규모를 좌우하는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에 혁신도시의 입지적 요인과 이전기관의 조직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전채은**(석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용도지역·지구제도 도입과 초기 변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20세기 전반 일본 통치 5개 지역(일본, 조선,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의 용도지역제 발전과정을 밝히고,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어지는 용도 혼합과 순화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이레**(석사과정)와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가구 및 주택 특성이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월평균 난방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와 주택의 특성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가구의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주택이 지닌 내생적 소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단순히 저소득층이라는 이유 외에도 에너지 효율이 낮은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난방에너지 소비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황보람**(석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한강변 공동주택 주거지 형성과정과 방재계획요소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변에 공동주택 주거지가 형성되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재계획요소들이 적용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질적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Nana Yaw Oppong-Yeboah**(석사과정)는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CLIMATE CHANGE AND THE RISK TO FOOD SECURITY IN GHANA (Case Study of the Northern)"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가 농업과 생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 **교통학 전공 남궁옥**(석사과정)과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5월 18~20일 부산한국제어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철도학회 “창립 20주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한국철도통계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통계품질진단을 위한 6가지 차원(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을 이용하여 한국철도통계의 품질을 정성적으로 진단하였다. 품질진단결과 한국철도통계는 각 차원에 대해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 공표된 통계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간의 전체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자 적합도(Fitness for Use)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교통학 전공 김민주**(석사과정)와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0~21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시성 확보를 위한 버스노선 당 적정 운행시간 산정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버스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버스운행시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버스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가장 적절한 버스 한 노선의 편도 운행시간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지하철과 같이 버스정류장에도 버스 시간표를 제안하여 정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교통학 전공 김혜민**(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0~21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서비스수준 분석에 기반한 가로변 버스정류장 대기 공간 적정규모 설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버스이력자료를 기반으로 버스정류장 대기공간의 통행목적별 대기인원 유형을 구분하여 1분 단위의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버스차량 중심의 서비스수준 분석 방식에서 실제적으로 정류장 대기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수준 향상이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정류장 대기공간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 **교통학 전공 엄기훈**(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0~21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호 대기시간을 고려한 버스도착시간 예측 신뢰성 향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신호교차로에서의 대기여부를 판단, 신호대기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버스통행시간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통해 버스도착시간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논문이다.
- **교통학 전공 오혜림**(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0~21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버스 통행시간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시성 향상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BMS 데이터를 이용하여 버스가 계획된 통행시간을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일찍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버스의 운행시간 중 소요시간의 변동성이 큰 요소를 정시성 저해 요소라 판단하고, 이를 조정하여 정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 **교통학 전공 이종우**(석사과정)와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0~21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센터제어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RND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긴급차량 출발 이전에 긴급차량 경로의 신호시간을 조정하여, 긴급차량의 신호대기로 인한 지체를 최소화하면서도 일반차량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긴급차량의 현재 위치를 반영하는 등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교통학 전공 이진수**(석사과정)와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0~21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DSRC 자료 기반 휴게소 이용실태 분석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비접점형 자료인 DSRC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휴게소 이용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현실적인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휴게소 이용실태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 **교통학 전공 전서희**(석사과정)와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0~21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BMS 데이터를 통한 버스 정차면 용량 산정 모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BMS 데이터를 활용하여 버스 차두시간 분포를 기존 수학적 분포모델(정규분포, 감마분포, 지수분포)과 비교하였다. 이후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향후 버스 정류장 대기 행렬을 감소시키고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정차면 용량 산정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교통학 전공 전서희**(석사과정)와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5월 18~20일 부산한국제어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철도학회 “창립 20주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철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및 해외의 철도 서비스 평가 동향을 살펴보고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해관계자, 서비스 품질 요소, 평가체계)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철도 서비스 품질 평가의 최종 목표는 고객 복리 증진 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술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환경관리 전공 안새롬**(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 제30권 2호에 “농촌체험교육 구조-실천의 환경교육적 이해: 경기도 교육농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한다(예정). 본 논문에서는 체험환경교육의 하나인 농촌체험교육의 구조를 분석하고, 농장과 학교라는 서로 다른 맥락에 놓인 교육주체들의 실천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 **환경관리 전공 강소연**(박사과정)은 2017년 4월 21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자바 해의 독수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길 잃은 자카르타의 기후정의”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내 기후정의 담론의 형성 정도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적응을 명분으로 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에 대한 어민, NGO, 학자,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후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니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박종문**(박사과정)과 **이성재**(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1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의 에너지 전환 운동을 통해 본 공동체에너지 형성 전략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형성과 조합원 모집, 발전소 운영의 과정에서 공동체에너지를 어떻게 형성해나가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안승혁**(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6월 23일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한국환경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사회적 수용성 높은 숲관리 정책 수립 방안 모색 - 논산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숲 개발과 거버넌스 관련 제도와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산 대둔산이 개발되는 경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회영향평가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최종민**(박사과정)은 2017년 4월 21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일본 '원자력촌'의 형성과정과 안전신화의 유포"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원자력 산업계와 관련된 폐쇄적인 이해관계 집단인 원자력촌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원전 안전신화의 형성과 유포에 원자력촌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했다.
- **환경관리 전공 권아영**(석사과정)과 **송해**(석사과정)는 2017년 2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득수준이 생활폐기물량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구별 소득수준이 생활폐기물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류주현**(석사과정)은 2017년 2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가습기 살균제 소비 확산의 원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의 역사를 건강주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가습기 살균제가 대량으로 소비된 궁극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건강과 건강관리에 대해 재고찰하여 바람직한 소비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명지용**(석사과정)은 2017년 4월 21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나고야 의정서와 커먼즈의 사례: 제주도 신흥2리 동백마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신흥2리 동백마을의 공유자원 이용방식과 소유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명지용**(석사과정)은 **이상훈, 윤성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과 함께 2017년 5월 15~17일 제주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17년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소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 **환경관리 전공 송해**(석사과정)와 **여지원**(석사과정)은 2017년 2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한 기업 특성 사례 연구: RE100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00%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한 RE 100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들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임현지**(석사과정)와 **명지용**(석사과정)은 2017년 6월 15~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기후변화학회 2017 상반기학술대회에서 "공력이익공유화제도: 우리는 바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제주 공력개발 이익공유제도의 목적과 본 제도를 통해 조성된 공유화 기금의 사용처를 알아봄으로써,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임현지**(석사과정)와 **유주연**(석사과정)은 2017년 2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인도의 태양 에너지 확대정책 결정 요인 분석: 정치-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개발도상국인 인도가 국내적으로 태양에너지 확대정책을 형성하게 된 결정 요인을 경제 및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Nurlin Amirudin**(석사과정)은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Resource Decoupling: A case study of Japan's material cycle policies in decoupling resource from economic growth"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종합적인 생산 레벨 규제가 특히 산업 분야에서 자원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Peng Yuan**(석사과정)과 **최종민**(박사과정), **김우창**(석사과정)은 2017년 2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서의 원자력발전확대정책 비판적 검토: 행위자 담론분석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행위자들이 원전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틀짓기하여 원전 확대 정책 추진을 정당화해온 과정을 행위자 담론분석을 통해 검토했다.
- **환경관리 전공 Ryan Dash**(석사과정)는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Why ar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e way they are? An exploratory look at drivers behind NDC formulation"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은 대통령의 정책 공약의 영향이 크고, 자개발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 국제 기금 획득 등의 영향이 큰 것과 같이 국가별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조유리**(박사과정), **김주리**(석사과정)와 **경영학과 임기영**은 2017년 2월 22~2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 발표대회에서 "주택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산림골재 공급량 예측"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포스터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주거용 주택 건설에 있어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없이는 2035년에만 당해 연도의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분별한 산림이 파괴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송준용**(석사과정),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 **김성태 교수**(건국대학교 생명환경연구소)는 2017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서울시 구청 옥상녹화지와 지면녹지의 거미 군집 조성 및 출현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옥상녹화지가 조성된 서울 구청 12개구의 청사건물 옥상의 거미군집의 종 조성과 포식기능군 조성에 집중하여 옥상 주변의 지면에 있는 녹지공간의 거미군집 조성을 NMDS로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협동과정 조경학 이진욱**(박사수료),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조경학회지 181호(2017년 6월호)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설계공모에 나타난 메모리얼 설계 경향"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과거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조성되던 기념물이 공개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형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과정과 메모리얼 설계에 대한 동시대 설계가들의 인식을 고찰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협동과정 조경학 김에림**(박사과정),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조경학회지 제45권 1호에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벽화마을의 효시로 일컫고, 각종 미디어에서 주목받으며 급격한 경관 및 공간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화동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벽화마을의 경관 변화과정의 맥락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화동 벽화마을의 주민, 이주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및 경관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여 벽화마을 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김지나**(박사과정), **박한솔**(석사과정), **조경진 교수**(환경조경학과)는 국토연구 2017년 6월호(통권 93권)에 "구철원시가지의 장소기억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구철원시가지 일대에 얽혀 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추적하고 폐허가 된 구철원의 기억의 장소를 재구성하였다. 이로써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기억들이 지속적으로 장소에 남아 존재하도록 하며 사라진 도시 철원을 복원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 **협동과정 조경학 박해경**(박사과정), **환경조경학과 최희준**(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6월 15~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 기후변화학회 2017 상반기학술대회에서 "UAV 영상자료 취득 및 SfM-MVS 분석을 통한 수목의 입체적 구조 정량화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UAV(드론)를 활용한 도시 내 중소규모 녹지 모니터링 기술개발의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취득 빈도에 따른 수관구조 추정치의 정확도 변화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협동과정 조경학 전성연**(박사과정),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조경학회지 제46권(통권181호)에 "경관 프로슈머로서 한복나들이 향유계층과 방문 장소 특성 연구 : 경복궁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복나들이객의 다양한 층위에 따른 특성과 선호 방문장소 분석을 통해 이들이 경복궁에 집중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도시의 역사문화공간과 온라인상에서 경관 이미지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경관 프로슈머'의 자발적인 취미활동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장소성과 경관이 창출됨을 밝힌 논문이다.
- **환경조경학과 최희준**(석사과정), **손희정**(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 외 **이정아, 조동길**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1권 2호에 "도시정원 도입을 위한 고밀 시가지지역 내 녹지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고밀 시가지지역 내 녹지들의 경관생태학적 특성과 연결성을 분석함으로써 잠재적인 패치들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생활권 내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도시정원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 **환경조경학과 손희정**(석사과정), **최희준**(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4월 14일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밀도 도심지 내 소규모 녹지 확보를 통한 잠재적 생태네트워크 형성-역삼동 일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강남구 역삼2동 일대 중소규모 녹지패치들에 대한 매핑과 경관지수 분석, 연결성 분석을 통해 대상지 내 녹지 네트워크 형성시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 **환경조경학과 송경민**(석사과정), **이지우**(석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4월 22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 행태 분석 연구: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휠체어 관련 정책과 이슈를 분석하고 이용자 형태를 유형화하여 추후 개선된 근린환경을 제시를 위한 분석을 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장국화**(석사과정)는 2017년 2월16~17일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교통학회 제76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아이트래커를 활용한 자전거 주행 시 응시 형태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자전거 도로의 유형과 속도 차이에 따른 응시범위 형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하재영**(석사과정)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4월 22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하는 혼잡 구간에 대한 도시 공간적 특징연구: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를 대상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대규모 집회에서 일어나는 혼잡함의 특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행사시 군중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데 기여하였다.

2⁹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내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Carolina Ajeng(석사과정)은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IMPLEMENTATION OF SELF-HELP HOUSING POLICY PROGRAM(Case study in Kampung Code, Yogyakarta City, Indonesia)"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Kampung Improvement Program(KIP)와 Community-based Housing Development(P2BPK)에서의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고 탐구하였다.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교통학 전공 이승봉(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4월 20~21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차량 통행경로자료를 이용한 구간통행시간 추정 방법론 개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고속도로 노선에 설치된 검지기(Road Side Equipment, RSE)를 통과할 때 수집되는 개별차량의 경로자료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구간의 대표통행시간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한국철도학회 "창립 20주년"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교통학 전공 Ahmad Tufail(석사과정)과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5월 18~20일 부산한국제어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철도학회 "창립 20주년" 춘계학술대회에서 "How to improve Quality of Service for Delhi's Mass Rapid Transit System by using AHP"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 사고, 환경 및 소음공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뉴 델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DMRTS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AHP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과 보안뿐만 아니라 신뢰성 또한 지하철 통근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학술발표대회 포스터 발표상

환경관리 전공 이승철(석사과정) 외 3인과 오능한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2월 22~2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산림-도시와 산림-농지 경관 구배에서의 하천 용존탄소 농도와 생지화학적 특성 비교"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상 부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와 농지 하천 탄소의 생지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하천의 수문 상태와 토지 사용 특성이 온실 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여주었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환경관리 전공 이용기(석사과정)는 2017년 2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Problems of Estimating the Cost of Air Pollu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내 건강피해를 추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통계적 인간생명가치의 불확실성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 '416안전공원 공모전' 수상

환경조경학과 박세준(석사과정)외 2명은 2017년 안산 세월호 416안전공원 설계 공모에서 2등을 수상하였다. 박세준 외 2명은 세월호, 그리고 기억의 상징인 노란리본을 모티브로 과거의 시간과 현재를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였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추모와 납골당의 개념을 공공의 공원으로 그리고 공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억하는 전략을 고민하였다.

2.10 석박사과정 교환학생 활동

서울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매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교 재학생 중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은 누구나 최소 한 학기에서 최대 두 학기까지 해외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 2017학년도 1학기에는 3명의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각각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로 파견되었다.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우수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7년 1학기에 파견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환경계획학과 여기봉(환경관리 전공 석사3학기), 유현교(환경관리 전공 석사2학기), 오진경(환경관리 전공 석사2학기) 학생의 교환학생 경험담을 소개한다.

여기봉(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석사3학기)

안녕하세요, 현재 이탈리아 베니스에 소재하고 있는 Venice International University(VIU)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환경관리 전공 여기봉입니다. 학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막상 교환학생으로서의 경험담을 적으려하니 그동안 지내왔던 이곳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베니스하면 '죽기 전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세계의 명소' 중 한 곳으로 매년 뽐힐만큼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던 대중적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를 빌려 쉽게 접할 수 있는 베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 보단, 이곳에서 몸소 체험한 학교 수업과 생활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베니스는 상당히 모순적인 도시입니다.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아쿠아알타(조수간만의 차로 베니스가 물에 잠기는 현상)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졌지만 이 현상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석호(Lagoon)로 이뤄져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지형이지만 주위에 아쿠아알타를 막기 위한 대형 보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베니스의 환경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운하로 이뤄진 수상도시이지만 이 운하를 이용하는 각종 수상교통편에 의한 크고 작은 파도로 인해 침식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로를 통해 곤돌라로 여기저기 아름다운 베니스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근방의 기름을 정유하는 산업단지로 인하여 주위 수질이 점차 악화되는 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연안지역 환경에 대한 관리방식을 가르치는 VIU의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Globalization Program을 별도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관리, 사회혁신 등 세계적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로 수업을 구성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서 환경의 관점에서 소개한 베니스는 VIU 수업의 장점을 대표하는 예시라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VIU는 각 나라에서 오는 교환학생들로 이뤄진 국제학교입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있어 그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흥미로운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 중 각자가 속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 내용이 나올 때 여지없이 손을 들어 반박하는 장면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주방을 이용해 각자의 전통 요리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등 의지만 있다면 요란 범석한 베니스 생활을 보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 면에서 약간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배 이외의 교통수단은 없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해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명 관광지라서 물가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해 생활적인 면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창 '배움'에 고달파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 합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다양한 경험 속에서 고군분투하다보면 어느새 더욱 성장하고 있는 스스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낮선 환경이지만 세계 여러 친구들과 함께 기후변화, 환경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면 베니스의 VIU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교(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석사2학기)



저는 2017년 1학기에 교환학생으로서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수학하고 있는 환경관리 전공 유현교입니다. 소위 '환경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 그 중에서도 제 2의 도시인 예테보리는 석유 의존율 0%를 목표로 하여 원자력, 풍력, 바이오가스 등 대체에너지 사용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그리고 북유럽 내 대학 중 '환경' 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예테보리 대학교에서의 한 학기는 새로운 경험과 함께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세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천연자원에 의한 갈등과 지속가능발전' 두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은 강의 교수 및 강의 주제가 유동적으로 운영되어 이론, 현장, 공공부문 등 비교적 여러 가지 시각에서 여러 주제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기 시스템이나 수업 방식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여,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 때쯤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짧지만 약 5개월간 이 곳에서 공부하면서 환경운동가로서 꾸준히 행동하시는 교수님들과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같은 시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짧은 4학기의 석사 기간 중 한 학기를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서 지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이상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부터 기대했었던 '다른 환경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다양해진 혹은 넓어진 시야, 이 두 가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교환학생은 이미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경대학원 학생 분들이 좋은 기회가 닿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경(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석사2학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17년도 봄학기 교환학생으로 수학과 있는 환경관리 전공의 오진경입니다. 석사과정에서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난 약 5개월간의 해외생활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것을 돌아보면, 얻은 것들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학교로서, iBT 성적이 있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과 여력에 따라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평소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이 덴마크를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직접 짐을 싸두고 교환학생 길에 올랐습니다.

덴마크는 2016년까지 세계행복지수 1위, 2017년 2위를 차지한 인구 약 5.6백만 명 정도의 북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 1970년대까지 석유 수입에너지에 의존해왔지만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수급의 대안으로 풍력에너지를 개발해왔고, 현재는 전 세계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석유 수입의 대안으로 원자력에너지 발전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덴마크 의회에서는 원자력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개발로 녹색산업발전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덴마크는 2050년까지 나라의 에너지 수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수도로서 2025년까지 탄소 중립도시로 변환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세계 제일의 자전거 친화도시로, 그 역사는 약 100년이 넘습니다. 처음 자전거 길은 1982년에 만들어졌고,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로 환경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왔습니다. 시민의 50% 이상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저도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도시 전체를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2월부터 3월까지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손이 얼얼하고 추운데, 이 곳 사람들은 익숙해서 그런지 크게 개의치 않고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한두 살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아기자전거를 통해 타기 시작한다니, 자전거는 덴마크인의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습니다.

코펜하겐대학교의 커리큘럼에서 덴마크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 중에는 환경과학, 기후변화, 환경관리와 같이 환경과 관련한 세부전공들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도 많이 열려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의 모든 수업들은 시민들에게 열려있으며, 덴마크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관심이 있다면 수업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는 학기제와 블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 한 학기동안 운영되는 과목과 1/2 학기동안 운영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약 5개월 동안 1/2 학기인 두 번의 작은 학기를 보내는 중이며 기후변화와 개발학 관련 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적극적인 토론으로 진행되며, 토론이 길어지게 되면, 진도를 나가지 않고 토론으로 수업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사과정은 영어로 진행이 되어 덴마크 이외의 유럽계학생들도 많이 있으며 대부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코펜하겐에서 생활하면서 환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과 교수, 그리고 관련자들을 만나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이 만나 보다 나은 환경과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었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을 연구하는 학생이라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열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펜하겐으로의 방문을 추천 드립니다.



2.11 석박사과정 학생 인턴십 활동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학생들은 국제기구, 도시·건축·조경설계사무소,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턴십 활동에 참여 중이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7년 1학기에 도시·환경 인턴십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두 학생의 인턴십 사례를 소개한다.



환경계획학과 김주영(석사과정)

UNCCD RCU(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아태지역사무소) 인턴십 활동 소감

반갑습니다. 환경관리 전공 석사 수료를 앞둔 김주영입니다. 저는 산림청(녹색사업단)의 해외산림 인턴 과정을 거쳐,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엔 사막화방지협약(본부: 독일 본) 아태지역사무소가 위치한 태국 방콕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UNCCD는 다들 생소하실 겁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 정상회담이 열렸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3대 환경이슈가 선정되었습니다. 인문을 통해 많이 알려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더불어, '사막화방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UNCCD는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환경개발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유일한 국제협약이고, 건조·반건조·반습윤 지역 내 토지 생태계와 거주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선진국에 비해 사막화□토지 저하에 취약한 개도국이 밀집되어 있고, 정치·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속해 있는 만큼, 이곳 지역사무소는 회원국 간 재정, 지식 및 기술이전 협의를 위한 가교 역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턴들은 사막화방지협약 이슈 내에서 현지조사 및 모니터링 대상지를 선정하고 독자적으로 분석, 보고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저는 베트남 호치민시대의 간지오 망그로브 숲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개도국 내 지역사회 토지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표(indicator) 채택 여부를 결정한 2차 IAEG-SDGs 회의, IPCC 5차 평가보고서 outreach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부서 의견을 개진했고, 때론 한국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소개 및 지속가능 목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사무소장의 여행일정 조정, 호텔예약 및 결제 등과 같은 일반사무행정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임무였습니다. 가끔은 해외출장 중인 소장을 대신하여, 태국 공주 초청 만찬행사, 여성 폭력 방지의 날 행사 등에 참석하는 꿈만 같은 국제교류 업무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국제기구 인턴십은 유엔시스템과 자신과의 공감을 최종 점검하는, 마치 교생실습과도 같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국제환경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고군분투하던 그 시간들이 진로를 고민하던 제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정은 고되나 도전의 열매는 달콤했기에, 새로운 여정을 펼치고픈 후배님들께 적극 추천 드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아도시연구소 인턴십 활동 소감

환경조경전공 송경민(석사과정)

안녕하세요.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경민입니다. 저는 올해 겨울방학 동안 전공인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 관련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 사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한아도시연구소 국내부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한아도시연구소(한국-아시아도시연구소)는 건설환경공학부 안건희교수님이 창설하신 민간연구소로 산업, 관광, 신도시 등 국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해외도시개발과 관련된 디자인 및 사업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국내부서에서는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도시재생전략, 도시마케팅, 타당성조사, 산업업무단지, 관광단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계획사업 중에서 주로 "NH 총괄사업관리자 추진방안 구상 용역" 제안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진주-서부경남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설계 스튜디오에서 해왔던 프로세스를 제안서 작성에 반영하고 이것이 연구용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가상으로 전제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면서 실제 사업에서는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아도시연구소에서의 인턴 경험은 제 견문을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부부터 석사과정까지 도시를 공부하면서 근린단위에서부터 신도시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도시환경을 다뤄봤지만 광역단위 지역계획은 처음 접해보아서 전공에 대한 매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할 석사 논문주제와 진로방향에 대해서도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고려하게 된 계기는 바로 우리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과목 덕분입니다. 앞으로 인턴십 과목이 더욱 활성화돼서 많은 학우들이 연구와 진로방향을 정하고 대학원 생활에서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환경계획연구소 관리 연구

| No | 과제명 | 연구책임자 | 위탁기관 |
|----|--|-------|------------|
| 1 | ICT-SW 융합 지역사회 문제해결 | 이영성 | 미래창조과학부 |
| 2 | 화물자동차 산업구조 조사 및 사회적 비용 분석 | 장수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3 |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 김경민 | 국토교통부 |
| 4 | 아파트의 인문사회학적 의미탐구 및 미래 주거계획의 방향성 모색[자문] | 전상인 | (주)현대산업개발 |
| 5 | 기후변화 위험시대 회복탄성을 고려한 적응 전략 연구팀 | 윤순진 | 교육부 |
| 6 | 도시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연구 | 이석준 | 교육부 |
| 7 |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 수요 및 편익추정 | 장수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8 | 부동산포커스 표지 디자인 제작 용역 | 이유미 | 한국감정원 |
| 9 | 경인고속도로(서안천IC~신월IC)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이영인 | 한국개발연구원 |
| 10 |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이영인 | 한국개발연구원 |
| 1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내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환경노출 예측기법 개발: 한국형 다매체모형의 개발 | 이동수 | 환경부 |
| 12 |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국내선 수요추정 및 편익산정 | 김성수 | 한국개발연구원 |
| 13 | 그들이 꿈꾼 도시, 우리가 사는 도시 | 김세훈 | 교육부 |
| 14 | 일제강점기시대 민족자본에 의한 도시개발 과정 연구: 정세권의 건양사를 중심으로 | 김경민 | 교육부 |
| 15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 검증용역 | 장현호 | 수도권교통본부 |
| 16 | 나 홀로 또는 함께, 산업단지의 회복력 있는 건강한 미래 찾기 | 이영성 | 서울대학교 |
| 17 | 백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요 및 편익부문 검토 | 김성수 | 한국개발연구원 |
| 18 | 전력소비자 행태분석을 통한 에너지기술혁신 방안 연구 | 홍종호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19 | [2차년도]파라토피아: 남북한의 평행적 도시 건축 | 서예례 | 서울대학교 |
| 20 | 내적 및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서 주거자기선택이 토지이용-통행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 김태형 | 미래창조과학부 |
| 21 | 신분당선(호매실~봉담) 복선전철 예비 타당성조사의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김성수 | 한국개발연구원 |
| 22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컨설팅 매뉴얼 제작 용역 | 윤순진 | 서울특별시 |
| 23 |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교통수요 및 편익 추정 | 이영인 | 한국개발연구원 |
| 24 | 공간정보를 활용한 빈집 개념 정립 및 활용 연구 | 이영성 | 한국국토정보공사 |
| 25 | 뚜루뚜루 문화예술거리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 | 조경진 | 지방자치단체 |
| 26 | 2050CleanEnergyProject | 홍종호 | 재)한국세계자연기금 |
| 27 | 4차 산업혁명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 | 김세훈 | 한국산업단지공단 |
| 28 | 능동형 우선차량 경로관리 및 신호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 이영인 | 경찰청 |
| 29 | 주민참여 경관계획을 위한 사회적 경관가치 평가 및 활용 방안 연구 | 정해준 | 교육부 |
| 30 | [3차년도]쇠퇴하는 저층주거 에너지 빈곤층의 환경개선과 복합용도개발 유도 모델 | 김세훈 | 미래창조과학부 |

교수 동정

4.1 교수 소식

1) 2017년 교수세미나

환경대학원 교수세미나가 2017년 2월 18일(토)부터 20일(월)까지 2박 3일 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수세미나에서는 오키나와의 역사문화유산과 태평양전쟁의 전적지를 방문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향후 환경대학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공개강좌 활성화를 위한 교수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교수세미나에서 답사한 오키나와 역사문화유산은 류큐왕국의 왕성 슈리성, 왕릉 타마우든, 외교사절 별장으로 사용된 시키나엔 등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가치가 높은 문화재였다.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의 격전지였던 만큼 많은 전적지가 남아있는데, 이 중 한국인 위령탑이 있는 평화기념공원과 (舊)해군사령부 방공호, 치비치리 동굴 등을 답사하면서 전쟁의 고통과 잔인함을 느끼고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

답사와 함께 두 차례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 및 지역, 환경 등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환경대학원 리더십, 향후 나아갈 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현재와 향후 추진 방향, 활성화를 위한 교수들의 실천적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 신입교수 부임 - 지거 쉐(Steven Jige Quan) 교수

Steven Jige Quan is a new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He earned his Bachelor degree in Architecture and Master degree in Urban Planning from Tsinghua University in China, and worked in Beijing Tsinghua Urban Planning & Design Institute as a chief planner in the No. 3 Department of Comprehensive Planning. After his work in China, Steven got his PhD degree in City and Regional Planning from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in US, and worked there as a lecturer before joining GSES.



His research focuses on energy oriented planning and design with a global perspective. In his research, urban form is regarded as a complex system materialized as geometric forms, organized with energy, water and material flows, and driven by historical, cultural and social processes. He is now establishing his own lab to study the science, design and policy of energy efficient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His research area includes the energy performance and human comfort of urban form, energy oriented Planning Support Systems (PSS) and Geodesign method, and energy oriented zoning ordinances.

Steven emphasizes 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welcomes any type of collaborations. His current research projects include: reduced-order urban scale building energy modeling, energy performance of urban form in global cities, relations between urban form and outdoor human comfort,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MDO) integrated Design Support Systems (DSS), and Local Climate Zone (LCZ) mapping in big cities.

He is recruiting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exploring the energy efficient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to work in his lab. He encourages and nurtures students' critical thinking, innovative ideas and global perspectives. In this past semester, he taught Seminar in Urban and Regional Issues: Special Lecture of Urban Form and Energy - Global Perspective. In the fall semester, he will teach two course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nd Seminar in Urban and Environmental Policy: Special Lecture of Zo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Global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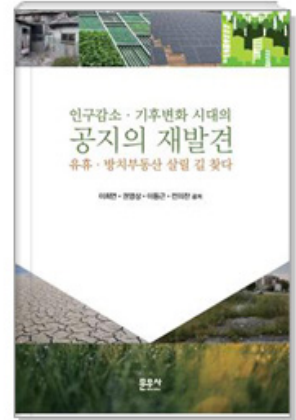
4.2 교수 동정

환경계획학과 이희연 교수

- 이희연 교수는 2017년 6월에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 - 유휴·방치부동산 살릴 길 찾다」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인구 감소 시대에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유휴·방치부동산을 살릴 길을 찾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환경에너지 분야의 다학제적, 융·복합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융·복합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다.

유휴·방치부동산이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유휴·방치부동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도시계획 분야, 빈집이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는 도시설계 분야, 유휴 부지를 녹지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조경·생태 분야, 유휴·방치부동산을 재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관심을 두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융·복합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0페이지 분량이다. 이 책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가공하여 유형별 유휴·방치부동산의 발생량을 간편하고 적실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휴·방치부동산 관련 법, 제도, 정책 및 사례들을 폭넓게 고찰하고, 유휴·방치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둔 여러 분야에서의 전략과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이미지들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을 통해 향후 해당 도시 특성에 부합되는 유휴·방치부동산의 맞춤형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저술되었다.



환경계획학과 최막중 교수

- 최막중 교수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와 UN-HABITAT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국가도시정책 국제회의에서 신도시 분과의 좌장을 맡아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주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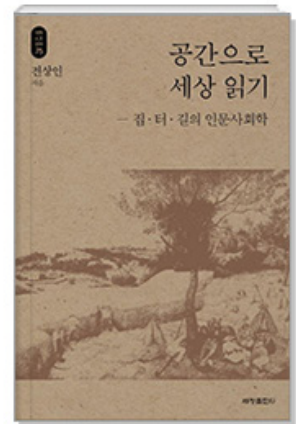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 전상인 교수는 「공간으로 세상읽기: 집·터·길의 인문사회학」을 출간하였으며, 환경과 조경 2017년 1월호에 논문 「광화문 광장인가, 광화문극장인가?」을 게재하였다.

- 전상인 (2017). 「공간으로 세상읽기: 집·터·길의 인문사회학」, 세창출판사.
- 전상인 (2017). 「광화문광장인가, 광화문극장인가?」. 환경과 조경, 2017년 1월호.

- 전상인 교수는 다수의 학회발표와 외부강연 등의 기회를 가졌다.
 - 2017.4.29. 연세대, "주거공동체 담론의 신화와 위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기조발제.
 - 2017.6.2. 고려대, "광화문광장의 극장정치" 한국비교사회연구회 전기사회학대회.
 - 2017.4.27. "아파트 주거문화의 현황과 미래" 서울특별시 공무원 특강
 - 2017.3.29.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진출인 주제발표.

- 전상인 교수는 2017년 5월 1일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주임교수 보직에 임명되었다(2017.5.1.-2019.4.30).



환경계획학과 김경민 교수

- 김경민 교수는 2017년 2월 「건축양, 경성을 만든다(이마 출판사)를 출간하였다. 본 책은 20세기 초반 북촌한옥 집단지구 형성의 도시계획 및 개발사적 의미를 재해석한 것이다.

당시 일본인의 경성유입이 급증하면서, 일제는 조선인 밀집거주지인 북촌에 일본인 거주지를 확장하려 하였고, 이는 당시 조선인에게 충격과 공포였다. 1920년 이후 등장한 정세권을 위시한 조선계 근대적 디벨로퍼들은 과거 귀족 소유 대형 한옥을 분할하여 여러 채의 작은 한옥들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현재 북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한옥집단지구가 탄생하였고, 이는 민족주거권 수호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한 때 경성 신규주택의 30%를 공급했던 기능 정세권 선생의 독립운동을 되짚었다. 대자본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고, 신간회, 조선어학회 등을 후원한 독립운동가였던 기능 선생은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함으로써 역사에 잊힌 존재가 되었다.

해당 책은 출판진흥원 선정 3월의 읽을 만한 책에 선정되었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KBS 다큐공감 '북촌, 90년의 유산')가 2017년 2월 방영되었다. 김경민 교수는 기획 자문으로 참여하였다.



- 김경민 교수는 EBS와 함께 2015년 가을부터 대학입시의 진실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였고, 5월과 6월 동안 6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의 공간불평등성의 정도(소득격차와 교육격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중앙일보 빅데이터 저널리즘팀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주거복지문제와 선거 분석 기획기사에 참여하였다.
- 아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 Park, H., Tsusaka, T. W., Pede, V. O., & Kim, K. M. (2017). "The Impact of a Local Development Project on Social Capital: Evidence from the Bohol Irrigation Scheme in the Philippines." *Water*, 9(3), 202.
 - 김다운·김경민·김건 (2017).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빈곤밀집지역에 끼치는 영향 -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8(2)(계재예정) (교신저자).
 - 유슬기·김경민 (2017).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 등부 지역의 상업도시화 과정." *서울학연구*, 67호(계재예정).
- 그리고 미국 지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에서 'Urban regeneration strategy using regional resources'(이석준·김경민)와 'Dejau-1920's Seoul resembles the late 1940's Levittown'(김경민·이지은·이상욱)을 발표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장수은 교수

- 2017년 2월16~17일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교통학회 제76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석박사생들과 함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 강지혜·장수은 (2017). "일반화 비용을 이용한 고속철도와 항공의 경쟁관계 평가: 경부축 사례로"
 - 전서희·장수은 (2017). "고속철도 개통 후 빨대효과 분석: 대구와 광주를 사례로"
- 2017년 3월, 정동재 박사과정, Catherine Ross 교수(조지아텍), 김준기 박사(국토연구원)와 공저로 고속도로의 비사용가치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SCI 급 저널에 게재하였다.
 - Chang, J. S., Jung, D., Ross, C. L., & Kim, J. (2017). Evaluating the nonuse values of expressways. *Transportmetrica A: Transport Science*, 13(5), 449-466.
- 2017년 5월 18~20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철도학회 "창립 20주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석박사생들과 함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박사과정생 Ahmad와 발표한 논문은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 Ahmad, T., Chang, J.S. (2017). "How to improve quality of service for Delhi's mass rapid transit system by using AHP."
 - 남궁욱·장수은 (2017).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한국철도통계 진단"
 - 전서희·정동재·오혜림·장수은 (2017) "철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 세 가지 관점"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

- 이도원 교수 연구실에서는 각각 박사과 석사 학위논문 내용 일부를 정리하여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영문 공동저서와 국문단독 저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 2016년 8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김고운 박사(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Rahul Vaswani(UN 아시아태평양경제이사회)와 이도원 교수를 공저자로 하여 Ecology and Society 22권 2호에 "Social-ecological memory in an autobiographical novel: ecoliteracy, place attachment, and identity related to the Korean traditional village landscape"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사회-생태적 자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생태기억(social-ecological memory)의 개념이 "사람-실천-장소의 복합체"임을 새롭게 제안하고, 사람-실천-장소의 역동적 관계는 다시 생태소양, 장소애, 장소의 정체성의 모습으로 구현됨을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례로서 박완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통제내용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했다.
- Kim, G., Vaswani, R. T., & Lee, D. (2017). Social-ecological memory in an autobiographical novel: ecoliteracy, place attachment, and identity related to the Korean traditional village landscape. Ecology and Society, 22(2).
- 2015년 2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 노준성(지구환경과학부 박사과정)은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와 김중성 교수(지구환경과학부), 이도원 교수를 공저자로 하여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fish assemblages to vary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rtificial reefs of the Jeju Island,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Marine Pollution Bulletin 118권 1호에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연안 인공어초의 어류위집 효과와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과 군집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여 인공어초 주변 환경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서식지 관리 관리를 제안했다. 특히, 해당논문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농수식품 성과 포커스"에 해당의 분야 우수논문으로(상위 5%)로 소개되었다.
- Noh, J., Ryu, J., Lee, D., & Khim, J. S. (2017).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fish assemblages to vary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rtificial reefs of the Jeju Island, Korea. Marine Pollution Bulletin, 118(1), 388-396.
- 이도원 교수는 "Geomantic practices of water acquisition and management during the Chosŏn Dynasty" 라는 제목의 글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Pungsu: A Study of Geomancy in Korea」(H. Yoon 편집)에 담았다(발간 예정).
이 글은 우리나라 풍수 원리의 일부를 현대 과학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물 사정이 어려웠던 조선시대의 상황을 살펴보고, 풍수 원리에 바탕을 둔 (1)곡류 선호와 (2)유역 단위 토지 이용과 배산임수, (3)화산(火山) 이야기, (4)마을 연못 조성, (5)경계 관리 강화 방식이 수자원 관리와 이용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과학적 근거를 논술했다.
- 이도원 교수는 「관경하다 2: 출근길과 이국 풍경까지를 퇴임 전에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한 「관경하다: 비단길 풍경과 생태학적 상상」의 속편으로, 이 책에서 그는 버스를 타거나 걷는 출근길, 전북 남원의 마을, 일본 노도반도, 중국 운남 남부 소수민족 마을, 미국 오리건 일부 지역, 호주의 여러 도시에서 만난 풍경과 현상들을 생태적 원리로 해석했다.

환경계획학과 홍종호 교수

- 홍종호 교수는 2017년 4월부터 서울대학교 본부직속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제5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 홍종호 교수는 2017년 5월 10~15일 베트남국립대와 베트남 일본대에서 서울대학교 그린리더십프로그램과 한국의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주제로 특강하였다.
- 베트남 국립대는 현재 그린캠퍼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서울대에서 추진 중인 그린캠퍼스(서울대에서는 2009년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 추진 선언) 활동의 일부인 그린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홍종호 교수는 이에 "Green Leadership Education and Certificate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 또한 베트남일본대학교에서는 특별강연을 요청 받아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Korean Experiences"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

- 윤순진 교수는 지난 4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환경사회학이란 학문 분과를 창설한 세계적인 저명 사회학자 Riley E. Dunlap 교수와 함께 Environmental Movements in Korea: A Sourcebook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한국 환경운동사의 핵심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에서 환경오염 및 파괴가 어떻게 야기되었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은 어떻게 전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한국의 환경 관련 사건 및 활동을 산업공해, 국책개발사업, 핵 관련 사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선별하여 다루고 있다. 서문에서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에 대해 서술한 후 각 장별로 주요 환경사안과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각 사안과 사건에 대한 개요를 기술한 후 연대기를 정리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와 성명서, 언론 기사 등 다양한 한글 원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이 발간하는 '현대 한국 영문자료 총서' 시리즈의 일부인데, '현대 한국 영문자료 총서'는 현대 한국 사회가 단기간 내에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 사회변동 등에 대한 해외 한국학 분야의 학문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한국 현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돕는 1차 자료를 주제별, 분야별로 정리·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 윤순진 교수는 2017년 1월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사회학과 Ryan Gunderson 교수와 함께 "South Korean green growth and the Javons paradox: An assessment with democratic and degrowth policy recommendations"란 논문을 SCI 저널인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게재하였다.

- Gunderson, R., & Yun, S. J. (2017). South Korean Green Growth and the Jevons Paradox: An Assessment with Democratic and Degrowth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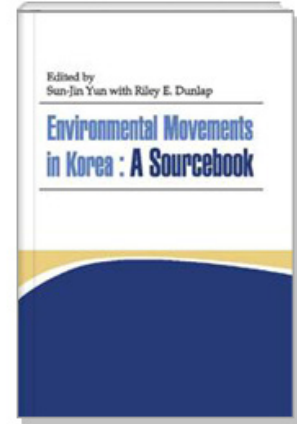
- 윤순진 교수는 여러 차례 초청강연 기회를 가졌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에는 영국 브리스틀대학교(University of Bristol)로부터 벤자민 미커 펠로우(Benjamin Meaker Fellow)로 초청을 받아 머무르면서 두 번의 특별 강연과 1번의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학대학원에서 열린 SPS/Cabot Lecture에서는 "Giving Teeth to the Tiger: A Critique of Green Growth in South Korea"를 주제로, 공과대학에서 열린 Transition Engineering Series 강연에서는 "The State of and Challenge to Low Carbon Sustainable Future in South Korea: Concerning the Role of Nuclear Technology"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또한 3월 28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재생가능에너지 전문위원회(the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의 초청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표하였다. 토론회의 주제는 "분산적인 에너지 해법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확장하기(Scaling-up renewables through decentralized energy solutions)"였는데 윤순진 교수는 "Seoul's Energy Transition Experiment: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Initiative"란 주제로 발표하여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 5월 31일에는 서울시가 주최한 제5차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Seoul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2017)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5년의 에너지 거보년스: 성과와 도전(Seoul's Five Year Energy Governance for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erformance and Challenge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6월 21일에는 제12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Policy Consultation Forum on the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SINGG))에 초청을 받아 "The Role of C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se Study of SEoul Metropolitan City"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행사는 유엔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한국의 환경부가 아태지역 국가들의 녹색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매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유엔 행사의 하나이다.



환경계획학과 오능환 교수

- 오능환 교수는 이승철 등 생지화학 연구실 대학원생과 함께 하천 탄소의 농도와 생지화학적 특성에 대한 현장 연구 결과를 한국생태학회와 European Geosciences Union 학술대회에서 소개하였다.

- 이승철(석사과정), 고민정(석사과정), 이은주(박사과정), 차지연(석사과정), 오능환, "산림-도시와 산림-농지 경관 구배에서의 하천 용존탄소 농도와 생지화학적 특성 비교", 한국생태학회 학술대회(2017년 2월)

- 이승철, 이은주, 차지연, 고민정, 오능환, "The role of landscape gradients on dynamics of stream carbon", European Geosciences Union 학술대회(2017년 4월)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

-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단독연구 두 편을 SCI급 저널에 발표하였다. Transportation Letters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토지이용-교통-환경 상호작용 연구분야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는 주거자기선택 문제를 내생오차의 내적타당성 문제에서 나아가 선택편의와 설명변수 간 상호작용에 따른 외적타당성 문제로 확장하고 현재 주거자기선택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수학적 모형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Transportation Planning and Technology에 실린 논문에서는 통행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비효율과 정적 효율을 소개하고 환경적으로 자동차 대안수단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통행효용 요소들과 건강차원에서 보행 등 무동력통행을 진작시키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 Gim, T. H. T. (2017). Examining the effects of residential self-selection on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an interaction moderation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ransportation Letters, 1-12. (인쇄중 및 온라인 게재)
 - Gim, T. H. T. (2017). Investigating travel utility elements in association with travel time and mode choice: the case of Seoul, South Korea. Transportation Planning and Technology, 1-20.
- 김태형 교수는 또한 KCI급 저널에 단독으로 2편, 교신저자로 1편의 국문논문을 발표하였다. 먼저 서울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만족도, 충성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관광특성을 발견하여 이를 서울도시연구에 실었고(단독저자), 환경정책학회 학회지인 환경정책에는 건조환경이 시민의 과제중/비만 및 체력, 질병, 사고 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단독저자). 또한 교통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심각성에 따라 구분하고 운전자 특성이 교통사고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교신저자).
- 지난 2월, 김태형 교수는 한국도시계획학회 용-복합미래도시위원회 초빙 세미나에서 지속가능성이 공간연구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소개하였으며, 4 월에는 협동과정 조경학전공에 겸무교수로 발령을 받아 향후 공간연구 분야에서 요구되는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김태형 교수는 한국연구재단(미래부) 산진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3년에 걸쳐 건조환경이 주중과 비교하여 주말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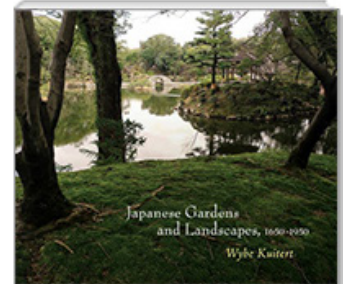
- 2017년 5월 1일부로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덴마크 Aarhus Kunstat의 The Timeshare Project, Real DMZ Project 전시와 함께 열린 Talk Program에서 "Lost Town: Ruins and Reconstruction on Place Memory of Old Town in Cheorwon"을 발표하였다.
- 2017년 4월 8~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풍경원림협회 제7차 원야고봉회의에서 "서울의 공공 공간, 변천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5월 5월 27~28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17 SPSD(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Current Projects and Issues of Public Space in Seoul"을 발표하였다.
- 2017년 5월 13일 블루메미술관에서 "어둠 개의 코드로 읽는 정원예술"이라는 주제로 talk를 하였다.

환경조경학과 비베 콰이테르트(Wybe Kuitert) 교수

-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5월 16~20일 열린 Nexus Conferenc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NEXUS APPROACH DNC 2017 에 참가, "Landscape System as a Sustainable and Inclusive Strategy to Urban Management and Development"라는 주제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발표 후에는 Society for Urban Ecology 와의 토론과 Hellerau Garden City의 방문이 이어졌다.
- The Journal of the Japanese Garden Society (23, 4: 18-23 ISSN 1368-4205)에 논문 "Chinese style composition of scenery in Chishaku-in"을 발표하였다.
- Dutch Boomzorg (9, 2: 28-33 ISSN 2211-9892)에 벚꽃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네덜란드의 Wageningen 대학과 Keukenhof Tulip Garden의 협력으로 진행된 연구의 첫 번째 성과이다.
- 2017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From Wasteland to a Global Brand: the Success Story of Beemster's Landscape Planning in the Netherlands"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4월 한 달 동안 중국 베이징의 주요 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 칭화대학 건축학과 "The three Distances of Guo Xi as seen in some Japanese Gardens" 강연
 - 지아통대학 건축디자인학부 "Cities are also Landscape" 강연
 - 베이징대학 건축계획학과 "Landscape system: Urban solutions" 강연
 - 북방공업대학에서 중국의 조경 및 건축 이론서인 '원야(園冶)'에 관한 수차례의 세미나 진행



- 2017년 단행본 「Japanese Gardens and Landscapes 1650-1950」(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Penn Studies in Landscape Architecture 시리즈 도서로서, 일본 정원과 조경의 역사를 미학을 비롯한 정치, 경제, 생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 신간 단행본 「Japanese Gardens and Landscapes 1650-1950」과 관련하여 5월 24일 환경대학원 402호에서 저자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비베 콰이테르트 교수는 일본의 정원을 미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당대의 정치, 사회, 생태적 관점으로 파악할 것을 강조하였다.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

- 김세훈 교수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석정 교수와 함께 <금천구 도시재생 Living Lab> 활동을 수행했다. 금천구 도시계획과의 전폭적 지원 하에 서울대 및 독일 다름슈타트대학 학생을 포함하여 총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주거-시장-산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활동가 및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도시재생 전략을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이번 3월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저서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한울, 2017)를 출간하였다. 우리 시대는 범람하는 도시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때보다도 빈곤한 도시론에 아찔하게 기대어 서 있다. 이 책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라는 미로를 탐침하는 몇몇 기준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 김세훈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후속사업(사업명: 초고령·저출산사회 도시쇠퇴를 대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 김세훈 교수는 원세형, 조시은 박사수료생과 함께 두 편의 SCI급 논문을 게재했다.
 - Won, S., & Kim, S. (2017). Mobili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A comparison of travel patterns and urban spatial use between migrants and the original residents of Danang, Vietnam. *Cities*, 67, 63-73.
 - Cho, S. E., & Kim, S. (2017). Measuring urban diversity of Songjiang New Town: A re-configuration of a Chinese suburb. *Habitat International*, 66, 32-41.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

- 송영근 교수는 2017년 4월부터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주임(대리) 보직을 발령받았다. 협동과정 조경학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와 농생대의 생태조경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경학과 박사과정 프로그램이다.
- 송영근 교수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강완모 박사, 농생대 조경학과 이동근 교수와 함께 2017년 6월 15~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기후변화학회 2017 상반기학술대회에서 “An ecological network analysis of mountain national park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최신 네트워크모형을 기반으로 국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생태네트워크를 전국~지역레벨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송영근 교수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실측기반 초고정밀 3차원 수관구조의 재현과 동태 모델링의 피지빌리티에 대한 연구
 -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생태형 공원녹지 조성모델 연구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복원 기술 개발(농생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교수 연구실 공동 연구)

석박사 과정

5.1 2016학년도 전기 졸업식

2016학년도 전기 졸업식이 2017년 2월 24일 금요일에 거행되었다. 석사 44명(환경계획학과 21명, 환경조경학과 23명), 박사 16명(환경계획학과 9명, 협동과정 조경학 7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서 석사학위자 우수논문 수상자로는 환경계획학과 김민수, 유슬기, 임준하, 환경조경학과 길민지, 유영서가 선정되었다. 우수논문 수상자에게는 학위기와 함께 우수논문상이 수여되었다.



5.2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2017년 1학기 양학과 통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난 2월 22일,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환경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은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 통합으로 진행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총 88명(환경계획학과 59명, 환경조경학과 22명, 협동과정조경학 7명)과 성중상 환경대학원장, 윤순진 부원장, 양 학과 학과장 및 여러 교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환영인사로 시작하였고, 학교시설 소개, 교수진 및 교과목 소개, 장학금 안내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후에는 학과 및 전공별로 학과장 및 연구조교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잠시 휴식 후, 신입생들은 동기들과의 팀작업 미션을 수행하였다. 환경대학원 PR Song 만들기 미션을 받은 신입생들은 팀별로 자신들의 소개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각오 등을 노래로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팀에 대한 시상을 가진 후 2부에서는 저녁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1학기 입학식 및 장학금 수여

2017년 3월 2일(목), 글로컬홀에서는 신입생들과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기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환경계획학과에서는 박사과정 15명(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9명, 교통전공 1명, 환경관리전공 5명), 석사과정 29명(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14명, 교통전공 7명, 환경관리전공 8명)이 입학하였다. 환경조경학과에서는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11명,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2명이 입학하였다.

또한 이날 입학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의 네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이필남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재서 장학금이 있다. 이번 1학기에는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이필남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7년 1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유재성(석사4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으며, **이필남 장학금**은 환경계획학과 박종문(석사3학기)학생, **미라보 장학금**은 환경계획학과 엄기훈(석사3학기)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박이레(석사2학기), 이종우(석사3학기), 라이언(석사4학기)학생과 환경조경학과 장국화(석사4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교통동문회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교통학 전공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교통학 전공 김민주(석사3학기)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석박사과정생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발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수여자를 선정하는데, 환경관리 전공 조유리(박사4학기), 손민지(석사3학기) 학생이 선정되었다.



5.3 학생회 활동

1) 2017년도 1학기 개강총회

2017년 3월 15일 오후 6시 서울대입구역 인근 보쌈집에서 환경대학원 개강총회가 열렸다. 오랜만에 대학원 내 모든 전공에서 신입생부터 재학생까지 모인 자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환경대학원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학생회에서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다. 간단한 추첨과 게임이 진행되었고 덕분에 어색할 수 있었던 첫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약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다들 준비해두었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개강총회는 끝이 났다.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다음 모임 장소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학생들 또한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하며 귀가하였다.

2) 82동 옥상파티

봄이 되면 눈처럼 떨어지며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간지럽히는 빗꽃이 지고, 그 자리에 초록 잎이 하나들 자라나던 4월,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있어 봄이 온 지도 잘 모르는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에서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에서 파티를 열었다. 중간고사 이후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옥상정원에서 개최한 이번 파티는 도시, 교통, 환경, 조경 등 환경대학원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옥상정원에 모여 수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타전공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지면 아직은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 아닌 옥상정원에서 불금을 보낸 많은 환경대학원 학생들 덕분에 성황리에 옥상정원 파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3) 서울숲 봉사활동

봄과 여름 사이 따뜻한 4월 말, 환경대학원 학생회에서 서울숲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6월부터 개화하는 꽃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구근류를 심는 작업으로, 서울숲 직원들과 학생회가 힘을 합쳐 백합 화단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터를 파고 큰 자갈과 잡초들을 걸러내 백합들이 잘 클 수 있는 터를 조성하고 거름을 준 뒤 정성스럽게 하나 하나 백합을 심어 화단을 조성했다. 백합은 다년생 구근초로서 해가 갈수록 더 큰 꽃이 피며 백합의 꽃말은 '순결, 변함없는 사랑'이다. 우리의 이번 서울숲 봉사활동을 통하여 6월이 됐을 때의 시민들이 백합을 보고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 뿌듯했고, 서울숲과 학생회, 그리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백합의 변함없는 사랑이 꽃피길 기대한다.



4) 2017 옥상 양봉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 옥상 양봉 프로젝트는 4월부터 시작되었다. 안태홍(Green Urbanist 대표) 외 13명의 구성원으로 4월 17일 처음 옥상에 입주(계상작업)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대학원 양봉부는 매주 일요일 정기적인 수업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양봉함으로써 준전문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또한 4월 옥상파티 때 양봉부의 정식적인 활동을 소개하며 홍보하였고 직접 재밌는 꿀을 시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양봉부의 방향은 행사기획 및 진행을 하여 모두가 어울려 교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환경대학원 옥상에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환경대학원 동아리 모집

2017년 봄학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환경대학원 내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관심있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환경대학원 소규모 동아리를 조직하려 한다. 동아리 모임은 학생들이 평소 관심있던 분야에 대해 의견을 받아 총 5개 분야(요가와 명상, 테니스, 사진, 논문 발제 및 연구 공유, 탁구)로 추려졌으며, 현재 동아리원을 모집 중에 있다. 소규모 동아리 활동은 아름다운 미소로 학업을 이룰 수 있는 활력제이자 친목 도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6.1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소식

1) 2016년도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평가에서 'A등급(우수)' 평가

서울대학교는 각 기관에서 개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개강좌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과정은 격년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이하 최고위과정, SGS)은 2013년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 2015년도 평가 1회 면제 혜택을 받은 후 3년 만에 받은 2016년 평가에서 또다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조직 및 운영, 교육과정, 예산·회계, 시설 및 행정지원, 개선노력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 평가항목 전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대학원은 1995년부터 최고위과정(SGS)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21일 수료한 제33기까지 975명의 펠로우가 수료하였으며, 현재는 9월에 출범하는 34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1995년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의 개설:

현대의 고도산업화 사회에서 한안이 되고 있는 도시 및 환경문제를 전문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1995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을 개설

2001년 과정의 개편: 「CEO환경경영포럼」, 「도시·환경디자인최고전문가과정」

Multi-Sectoral Approach달성을 위한 모집단위 광역화, 발제와 토론 위주의 포럼형식으로 변화 외부 운영위원 참여를 통한 수요자의 Needs 적극반영

2007년 세부과정 명칭 변경: 「CEO지속가능경영포럼」, 「도시·최고전문가과정」

'환경경영'의 이슈가 윤리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위해 명칭 변경

2012년 「도시·환경최고위과정」으로 통합

'도시'와 '환경'을 상호 배타적 관점이 아닌 보완적 관점에서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함

2015년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으로 개편

국토, 도시, 환경 분야가 맞이하는 도전과 과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포럼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함

통합기수 1기~33기, 975명 수료

2) SGS 32기 초청 33기 환영행사

SGS32기(회장 우승헌, 사무국장 강상범)는 지난 3월 29일(수) 33기(회장 김재준, 사무국장 송영주 대표)를 초청하여 '환영 만찬' 행사를 가졌다. 성종상 원장과 32기, 33기 펠로우 30여 명이 참석하여 선배기수가 후배기수를 환영하고 기수 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6.2 SGS 33기 해외시찰

최고위과정 33기는 2월 3일(금)부터 6일(월)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현해탄 건너 자연과 역사에서 배우는 미래 도시환경 전략"을 주제로 일본 큐슈 3개의 섬(야쿠시마, 데지마, 하시마)에 다녀왔다. 최막중 前원장, 이재준 공동주임교수, 이도원 교수, 전상인 교수, 손용훈 교수와 33기 펠로우 15인, 선배 펠로우 3인이 함께 하였다.

주요 답사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원시림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삼나무(아쿠스기) 원시림, 시라타니운스 계곡 트레킹, 오키 폭포, 히라우시 해중 운천

근대 동-서양 역사유산 [나가사키현]

데지마(出島): 개항기 네덜란드 무역상 거주용 인공섬

근대 한일 역사유산 [사가현]

가라쓰(唐津): 임진왜란 출병지

아리타(有田): 임진왜란 조선도공 이삼평과 일본 최초 도자기

현대 한일 역사유산 [나가사키현]

하시마(端島): 조선인 강제 징용지(미쓰비시 중공업)인 군함도



1) 4차 오픈특강: 지구생태위기와 지속가능한 세상

2월 23일에 33기의 후반기 개강행사로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지구생태위기와 지속가능한 세상'을 주제로 오픈특강이 있었다. 강연에서 김정욱 교수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초래된 지구의 사막화, 오존층 파괴, 생물 멸종,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소개하였다.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자급 체계 구축,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자원순환사회 구축, 생태계 수용능력 이상의 개발행위 불허, 산림-갯벌-농경지-물의 보존목표 설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자원순환 협력 체계와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 5차 오픈특강: 축적의 시간 -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SGS 33기 마지막 세션으로 4월 6일 이근우 서울대 공대 학장을 초청하여 '축적의 시간 :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라는 주제로 5차 오픈특강이 있었다. 강연에서 이근우 학장은 '중간소득 함정'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던 한국의 산업계가 처한 현실과 위기를 소개하였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과제로 '개념 설계 역량' 함양을 위한 '도전적 목표-글로벌 네트워크-시행착오의 축적의 사회적 축적 사이클을 통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가 창조적 축적을 위해 열린 사고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3기의 다섯 번째 오픈특강은 최막중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선배 팔로우 뿐만 아니라 석·박사과정 동문 및 재학생도 참석하였다.



6.4 SGS 33기 수료식

지난 4월 21일(금),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최고위과정 33기의 수료식이 있었다. 참가자 36명 전원이 수료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성종상 환경대학원장, 송두영 SGS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수, 선배 펠로우, 수료자 등 60여 명이 함께하여 수료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SGS 33기는 2016년 9월 21일 출범하여 전·후반기 총 19주 동안 도시, 건축, 조정,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31개 세션의 교육과 국내외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동문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학생, 동문에게 개방되는 5회의 오픈특강도 마련되었다. 33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전반기 | 1 | 오픈특강 I 세계화시대 한국인의 심상: 지형, 역사, 성정 | 송호근 서울대 교수 |
| | 2 | 미래도시의 공간가치 창출 |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
| | 3 | 도시주거의 새로운 전개 | 최명철 단우건축대표 |
| | 4 | 스마트 그린시티: 신기후체제 시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도시설계 전략 | 김기호 명예교수 |
| | 5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이희연 교수 |
| | 6 | 거대개발과 거버넌스 | 김경민 교수 |
| | 7 | 오픈특강 II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역할 |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 | 8 | 도시환경과 시민사회 - 새로운 거버넌스 | 양병이 명예교수 |
| | 9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와 미래 지역발전 | 이영성 교수 |
| | 10 | 도시공간디자인의 수준 높이기 I | 서예례 교수 |
| | 11 | 도시공간디자인 수준 높이기 II | 이유미 교수 |
| | 12 | 도시경관의 관리 -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 손용훈 교수 |
| | 13 | 그린을 통한 건강 행복 증진 | 성종상 교수 |
| | 14 | 오픈특강 III 기후변화와 건강 |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
| 후반기 | 15 | 오픈특강 IV - 지구생태위기와 지속가능한 세상 | 김정욱 명예교수 |
| | 16 | 물과 지속가능 발전 | 이도원 교수 |
| | 17 | 건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 홍종호 교수 |
| | 18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과 정의로운 전환 | 윤순진 교수 |
| | 19 | 21세기 기후에너지 현황과 대책 | 최열 대표 |
| | 20 | 자율주행차의 기술동향과 교통정책방향 | 국토부 정의경 과장 |
| | 21 | 춧불시위와 도시계획 | 전상인 교수 |
| | 22 | 서울의 공공공간: 변천과 전망 | 조경진 교수 |
| | 23 | 서울시의 최근 도시정책 - 새로운 동향과 접근 | 백운수 미래E&D 대표 |
| | 24 | 서울 메타시티 | 김영준 서울시 총괄건축가 |
| | 25 | 오픈특강 V - 한국 산업의 성취와 한계 | 이건우 서울공대 학장 |

*펠로우 플랫폼이 전반기 4세션, 후반기 2세션 진행됨



33기 과정을 수료한 36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석규 (무영CM건축사사무소 상무)
- 강선미 (금천구청 도시재생상임기획단 주무관)
- 김명호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 김상연 (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용배 (KCC홀딩스 상무)
- 김용준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 김은희 (니켈세계이 서울지사 부지사장)
- 김재준 (빙림이엘씨 대표)
- 김정희 (동양건설산업 부사장)
- 김중원 (한국조명서비스 대표)
- 김지현 (부산시의회 정책연구팀장)
- 김학진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국장)
- 김훈희 (H Square Design Works 대표)
- 문종화 (안산시 상록구청 구청장)
- 박기정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석팀장)
- 박상권 (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 박혜란 (대흥리사이클링 전무)
- 방효영 (정림건축 상무)
- 송명호 (왕산플래너스 대표)
- 송영주 (선우이엘씨 대표)
- 신승도 (양평신내서울해장국 대표)
- 신지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주무관)
- 엄형원 (PMK 대표)
- 우미경 (서울시의회 의원)
- 이봉훈 (진화건축건축사사무소 사장)

이상대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이영권 (동아석재산업 대표)
이형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창원 (경기도청 철도건설과 과장)
정성호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장)
조범주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장)
지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진욱 (해안건축 소장)
한영숙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홍준용 (법무법인 동우 변호사)

시민정원사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 및 수목원, 마을가꾸기 등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본 과정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 중 이론 위주의 과정을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정원에 적합성이 높은 우리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기 강사진은 환경조경학과와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이유미 교수, 송영근 교수, 외부강사 김용택 소장(Kni 환경디자인스튜디오), 조혜령 작가(가든디자이너, 환경조경학과 박사과정 중)로 구성되었고, 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정원학개론 동양정원사 | 서양조경사 현대도시의 삶과 정원문화 | 도시생태와 정원 | 정원설계1 | 정원설계2 | 정원설계3 | 현장답사 - 천리포수목원 |
| 성종상 교수 | 조경진 교수 | 송영근 교수 | 김용택 소장 | 이유미 교수 | 조혜령 작가 | |

4월부터 시작된 2017 봄학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75명의 수강생이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으로 답사를 다녀왔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주였던 설계 수업을 2주로 진행하고 있다.



동문소식

8

동창회

8.1 전공별 동창회 행사

1) 교통학 전공 동창회

2017년 교통동문 신년하례회

지난 2월 28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에서 교통동문회 신년하례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교통학 전공 석·박사 졸업생 및 재학생 48명과 임강원 명예교수, 김성수 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은 교수 등 총 52명이 참석하였다. 신년하례회는 김연명 동문회장님과 임강원 명예교수님의 격려사로 시작하였고, 국내 연구원과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상반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경아 박사와 김경희 박사, 전우훈 박사에게 기념패 전달식과 함께 우수한 학업 활동을 한 김민주 석사과정에게 교통동문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후에는 저녁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교통동문 홈커밍데이 등반행사

지난 6월 3일, 환경대학원 교통동문회 홈커밍데이를 진행하였다. 홈커밍데이 행사는 동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악산 등반을 하였으며 김성수 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는 교수를 선두그룹으로 총 23명의 동문이 참여하였다. 약 3시간의 등반 이후 임강원 명예교수를 포함한 약 30여 명의 동문 및 재학생은 함께 낙성대 인근에서 저녁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 환경관리 전공 신년하례회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은 2017년 새해를 맞아, 1월 21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김정욱 명예교수와 재직교수, 동문 및 재학생들이 함께 덕담과 근황을 나누는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김정욱 명예교수의 새해 덕담과 함께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졸업생들은 은사님 및 동문들과 근황을 나누며, 새해에 각자가 품은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신년하례회에서는 여러 재학생들의 참여로 재학생-동문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획의 장이 되었다.



3) 환경조경학과 동문 홈커밍데이 & 스승의 날 행사

지난 5월 13일 토요일에는 15년 만에 부활해 올해로 3회를 맞이한 환경조경학과 동문 홈커밍데이가 서울대학교 버들골 잔디밭에서 동문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최되었다. 올해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약 50여 명의 동문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재학생들의 많은 도움으로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동문과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조경학과 교수들도 초청하여 스승의 날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동문 동정

9.1 석·박사과정 동문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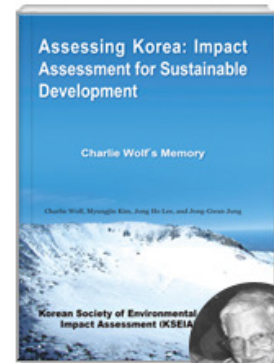
- **이주희**(도시계획9기, 1975입학 77년 졸업,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2017년 6월 『굿모닝 소울메이트』(도서출판, 행복에너지, 304쪽)이라는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이 소설은 이 동문이 80년대 출간하여 베스트 셀러였던 F학점의 천재들 ①부-멋없는 배우들, ②부 자기 전성시대에 이어 37년 만에 출간된 ③부 연작이다.

『굿모닝 소울메이트』는 우리나라 그린벨트와 지방자치를 소재로 쓰여진 소설로서 젊은 때 사귀던 첫사랑과 30여 만에 다시 만나 젊을 때의 꿈과 야망이 중년 이후에 F학점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작가 특유의 호흡이 빠른 필력과 블랙 유머를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중호**(계획 12회), **김명진**(계획 17회), **정종관**(계획 17회), **홍상표**(계획 20회)는 2017년 3월 10일 찰리 울프 전 국제영향평가학회(1933~2015) 서거 2주기를 추모하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KSEIA)와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공동으로 “한국을 평가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향평가”(Assessing Korea: Impact Assess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간하였다(인쇄: 도서출판 서문인화, 148쪽, 정가 12,000원).

이 책은 찰리 울프가 생전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정책제안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석학의 정책방향과 제안으로 1970년대 고도성장기를 넘어 21세기에 한국이 지속가능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과의 인연,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전 지구적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지역개발과 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등의 내용 이외에 한국저자 김명진(국립한경과학원), 이중호(청주대학교), 정종관(충남연구원) 등 3인이 발표한 영향평가의 방향, 대규모 국책사업 개발과 환경 간의 갈등문제 해결책, 광역도시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등을 담고 있다.



- **조세환**(조경 11회) 한양대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전공 교수는 2016년 10월 21일에 (사)한국바이오택경관도시학회의 창립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 동문은 2017년 5월 30일에는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생명경관도시'라는 주제로 2017년 제1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생명경관도시의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사)한국바이오택경관도시학회는 다분야 간 통섭과 융합의 학회로서 도시가 자연과 같이 유기체적 생명력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설립되었다. 국내 처음으로 회비없는 학회로 출발하여 5월 현재 학술발표회 2회 개최, 학회지(바이오택경관도시 리뷰) 2회 발간, '바이오택경관도시포럼' 2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한국바이오택경관도시학회는 모바일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 라인 상에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회원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 가입을 원하면 플랫폼(www.kablu.or.kr)에 들어가서 간단한 절차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9.2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동문 동정

- 윤세한**(SGS 8기, 해안건축 대표)펠로우와 **임진우**(SGS 32기, 정림건축 대표)펠로우가 각각 대표로 있는 해안건축과 정림건축에서 공동설계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기공식'이 지난 2월 18일(토)에 있었다. 부속 병원은 1,234 병상의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 SGS 20기 자치회**(회장 지승준, 사무국장 김대문)는 5월 12일(금) 잡아와 묵은지 교대점 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 SGS 22기 자치회**(회장 최광주, 사무국장 최송휴)는 5월 12일(금)~13일(토) 1박2일의 일정으로 '백두대간 수목원 힐링 탐방'을 다녀왔다. 22기 펠로우와 가족, 선배 펠로우 등 30여명이 참여하였다.



- 고병준**(SGS 22기, 한국국립공원진흥회 회장)펠로우는 지난 5월 26일(금) 사단법인 한국국립공원진흥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되어, 6월 7일(수) 회장에 취임하였다.



- SGS 24기 자치회**(회장 손유래, 사무국장 주찬용)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유병영(진명기업 대표)펠로우, 사무국장으로 전영성(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펠로우가 선출되었다.

- SGS 28기 자치회**(회장 윤태권, 사무국장 남정현)는 3월 16일(목) 송파 대나무집 한정식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28기 펠로우의 마음을 모아 전임 정광희 회장(우림헨스 대표)과 이상표 사무국장(정림건축 부사장)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최임락(SGS 28기, 국토부)펠로우는 지난 2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3년간 근무하게 되었다.



- SGS 29기 자치회(회장 류준호, 사무국장 조은혜)는 2월 7일(화) 종로 청진동 '물자리'에서 2017년 첫 모임을 가졌다.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김종석(한국기상산업진흥원 원장) 펠로우, 사무국장으로 양희범(시아플랜건축 본부장)펠로우가 선출되었다.



- SGS 29기 자치회(회장 김종석, 사무국장 양희범)는 3월 30일(목) 중구 아상 한정식에서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신임 김종석 회장의 자치회 운영 계획 발표와 김희덕 펠로우의 결혼 발표가 있었다.



- 곽노상(SGS 29기, 코레일네트웍스 대표)펠로우는 2016년 3월 7일(월)에 제8대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곽노상 펠로우는 기술고시를 통해 1981년 철도청에 입사해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장, 수도권 서부지사장, 전남본부장을 거쳐 사업개발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강형신(SGS 29기, 대구환경공단 이사장)펠로우는 2017년 4월 12일(수)에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 김희덕(SGS 29기, 한국조경건설 부사장) 펠로우는 5월 26일(금) 스테이지28 메모리가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도원 원장님과 29기 펠로우 10여명이 함께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 김진학(SGS 29기, 영남건설 사장) 펠로우는 6월 9일(금)에 환경대학원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출연하였다. 김사장은 2015년부터 매년 300만원을 환경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주고 있다.



- SGS 31기 자치회(회장 조진형, 사무국장 권수아)는 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국장 이경훈)는 5월 11일(목) 여주 페럼클럽에서 친선 골프모임을 가졌다.



- 이연소(SGS 31기, 유엘피 소장, 조명디자이너) 펠로우는 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주소: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테라타워 B동 723호



- 권혁설(SGS 31기, 엠아이티존 대표) 펠로우는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4월 10일(월) 청도군청에서 우리나라 코미디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코미디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청도군은 그동안 180억원을 투자해 코미디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전시·체험관, 라키비움, 교육생활관 등을 갖춘 '한국코미디타운'을 준공, 5월 26일(금) 개관하였다.



- SGS 32기 자치회(회장 우승헌, 사무국장 강상범)는 1월 18일(수) 강남 채미정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 SGS 32기 자치회(회장 우승헌, 사무국장 강상범)는 4월 19 일(수) 은화삼CC에서 골프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은 황일권 (지케이이엔지 대표) 펠로우의 이글 기념행사도 있었다. 이날 저녁에 이어진 32기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지진호 (뉴그린창신 전무)펠로우, 사무국장으로 이경훈(정림건축 부사장)펠로우가 선출되었다.



- 우승헌(SGS 32기, 동양건설산업 대표)펠로우가 대표로 있는 동양건설산업이 2016년 1월부터 통합법인으로 새 출발을 했다. EG-동양건설의 합병을 완료하고, 파라곤-EG the1의 투브랜드 전략을 유지한다고 한다.



- 이수복(SGS 32기)펠로우가 운영 중인 에스비엔씨는 3월에 법인으로 전환하며 설비계통관련 면허를 모두 확보하여 종합엔지니어링(전기, 통신, 기계, 소방 설계 및 감리)사로 발전하고 있다.



- 임진우(SGS 32기, 정림건축 대표)펠로우가 대표로 있는 정림건축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창립 반세기!
 현재 정림의 조직을 구성하는 임직원으로서, 올해 신입사원들부터 대표에 이르기까지 한사람, 한사람 각자의 신분과 자리에서 50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의미이자 가슴 벅찬 사건이다.
 한 기업이 반세기를 생존했을 뿐 아니라 꾸준히 성장했다는 일은 매우 도달하기 어렵고도 힘든 성취이며 내가 지금 그런 회사에 소속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립 기념사 중에서.....



- SGS 33기 자치회(회장 김재준, 사무국장 송영주)는 3월 20 일(월) 가평 아난티CC에서 골프 월례회를 가졌다. 저녁에는 팬트하우스에서 자치회 활성화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 SGS 33기 자치회(회장 김재준, 사무국장 송영주)는 3월 30일(목)과 4월 6일(목)에 각각 이재준 공동주임교수와 최막중 교수를 모시고 종강모임을 가졌다.



- SGS 33기 자치회(회장 김재준, 사무국장 송영주)는 4월 15일(토) 성수동 수제화거리 일대 답사와 졸업파티를 열었다. 조경진 주임교수님과 석박사 과정생 10여명, 33기 펠로우 20여 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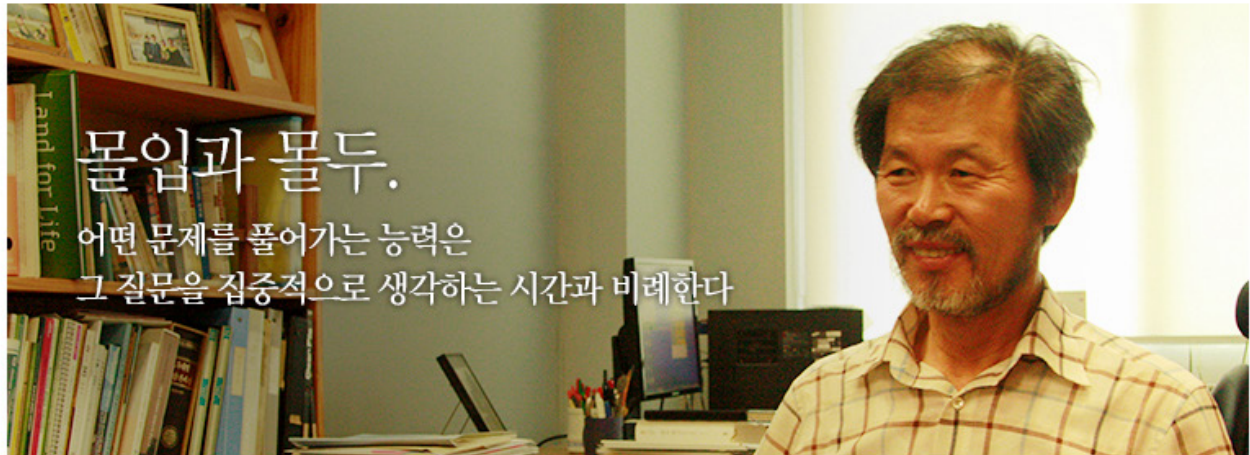
- SGS 33기 자치회(회장 김재준, 사무국장 송영주)는 6월 17일(토) '광명시 문화탐방' 모임을 진행한다. 낮에는 구름산 트레킹과 광명동굴을 답사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신승도 펠로우가 운영하는 '양평신내서울해장국'에서 뒤풀이를 한다.



- 박상권(SGS 33기, 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펠로우는 3월 25일(토)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기면증 과수면 학회에서 "Sleep and Safe Driving -focus on diagnostic and care support for sleep disorder drivers-"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년을 맞이한 이도원 교수 인터뷰



Q1.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졸업생이고, 1992년에 환경계획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5년간 모교 교수로 봉직하면서 우리 대학원에 대한 애착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대학원에 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계기와 교수님의 학생시절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시골출신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 지금의 서울대학교 농생대, 당시에는 농대에 가려고 했다. 대입 원서를 쓸 때, 농대가 수원캠퍼스에 있어서, 희망했던 원예학과와 가장 가깝겠다는 생각으로 식물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식물학과는 농업과 관련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 처음에는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향했다. 군대를 다녀온 다음 집안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았고, 아버님의 권유도 있어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직장생활은 나랑 맞지 않았다. 1년 반쯤 근무한 무렵 혼자 설악산을 다녀오는 오는 버스에서 우연히 조경수 사업을 하는 사람 옆자리에 앉게 되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다. 1979년, 그 당시 서울의 말죽거리에 있던 그분의 농장을 찾아가보기도 하고, 본래 내가 희망했던 농업과 관계되는 일이라고 보였다.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찾아보니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조경학과가 있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환경대학원이 있는지도 몰랐다.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조경학과를 무작정 찾아갔다. 연구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서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준비하여 입학하게 되었다.

Q2. 석사 졸업 후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을 하셨는데, 교수님의 유학시절 이야기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사 환경조경학과를 왔는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작업이 많았다. 그래서 환경조경학과에서도 내가 경쟁하여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부 때부터 해보고 싶던 생태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다. 그 당시 생태학을 공부하려면 생물학과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박사 생물학과로 유학을 하려고 하니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녔고,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쉽지 않았다. 생물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GRE 생물분야 시험을 봤는데 요건에 맞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GRE 생물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환경공학 분야로 박사과정 진학하여 생물학과 과목을 수강했다.

유학 생활 중에도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중국인 애를 돌보는 일도 하고, 연구조교가 되어 그러저럭 생활을 유지했다.

유학생들이 특별했다기보다 우리나라, 곧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밖에 할 게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이미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한국에 있으면 친구들도 만나야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 애경사에 가야한다. 이렇게 주변을 챙길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위한 시간을 나눠야한다. 그런데 유학을 가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생활을 면제 받는다. 때문에 한국에 있는 나의 지인, 쟁쟁아 할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유학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공부를 할 때, 다른 것에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 기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 기간에는 어떤 하나의 주제에만 몰두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공부에 투자하면 되는 일이다. 유학생들에서만 아니라 어디서 공부를 하든 어떤 주제에 자기가 몰두·몰입하는 시기를 가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맞지 않는 길은 피할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너무 자신의 주제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과 답을 쌓는 것은 안 되지만, 앞에 놓인 주제에 대해 얼마만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지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과 비례한다고 조언해 주고 싶다.

Q3. 그동안 연구를 위해 산과 들, 강과 사막 등 끊임없이 현장을 다니셨습니다. 교수님께 현장 혹은 답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환경관리 전공에서의 '공부'는 논문과 책을 포함하는 문헌자료를 읽는 것과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이어줄 끈을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장 혹은 답사가 50%쯤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책 읽기와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늘 연구에 대한 생각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헌자료를 읽든 현장에 있던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중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가족들 얘기라도 귀에 안 들어오고, 심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말을 시킬 때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족들이 서운해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 때 생각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소중한 착상이 날아가 버린다. 이런 면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Q4. 「경관생태학」, 「떠도는 생태학」, 「한국의 전통생태학」 등 생태학 분야에서 주요한 책도 쓰셨습니다. 교수님 책이 생태학을 공부하는 제자들이나 후배 연구자에게 주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는데, 책을 쓰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쓴 책은 「경관생태학」 밖에 없다.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현장이 연결 될 때, 글로 적은 것이다. 어떤 것은 현장에서 어떤 광경을 보면서 불쑥 생각이 나서 쓴 부분도 있다. 따라서 현장을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문득 끌어낸 것들을 글로 적었는데, 「관경하다」나 「떠도는 생태학」이 그런 책들이다.

책을 쓰면서 특별한 것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석사학위과정을 조경학과에서 했으니 내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도 조경학 전공자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알았다. 「경관생태학」 책을 쓸 때, 조경학과 학생들한테 밑그림을 그려주고 깔끔하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다. 이런 점은 내가 조경학과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내가 조경학과 출신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그림들이 꽤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부분 사례를 조금씩이라도 하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대체로 학생들에게 사례를 하지 못했다. '현대산업사회와 환경문제'라는 교과목을 맡았을 때, 학부 수업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들의 학생들을 만났다. 그 당시 수강생들에게 '내가 준비하는 책의 삽화가 필요한데 많지는 않지만 사례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당시 미대 디자인학부의 이윤진과 이지은 학생이 나서서 도와줬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지만 현장을 봐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테리고 경성북도 고택을 방문하여 감각을 익히게 했다. 그리고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에 작가의 집(한옥 고택) 주변이 꼼꼼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고는 내가 대략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개념도를 그렸다. 내가 검토하고 학생들이 고치는 과정으로 마련한 그림들이 꽤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때 인연을 맺은 학생들과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낸다. 조만간 나올 영어 책에 넣을 그림을 급하게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바쁜 와중에도 도와주었다.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본인이 바빠서 밥 먹으려 못 온다며, 책이 나오면 한 권 달라고 했다. 따져보면 밥 몇 끼 사는 것보다 정장본 영어 책 한권이 훨씬 더 비싸다(웃음). 그래서 아직 빛으로 남아 있다.

학생들에게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나 역시 학생들을 계속 챙긴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급할 때 부탁을 할 수 있더라(웃음).

Q5 교수님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신 전통마을숲 연구에 대한 관심도 보편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전통생태학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옛 것과 최신의 것을 융합하는 과학 분야 학문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하면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옛말과 관련이 있다. 東道는 동양의 개념이라 할 수 있고 西器는 서양의 기술, 즉 방법론을 뜻한다. 개념과 방법론을 엮으려는 노력은 조선 후기에 이미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풍토를 넘어서지 못하면 동양의 연구가 서양을 뛰어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방법론, 이를 테면 수학이나 통계학, GIS, 공간모형 이런 것들이 모두 서양에서 왔다. 우리는 연구를 할 때 여전히 서양의 방법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방법론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성에 젖으면 결국 동양의 방법론을 못 만들고, 동양의 개념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동양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서양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동양의 연구 방법을 어떻게 찾고, 만들 것인지 막막하긴 하지만 서양의 수학이나 통계를 뛰어넘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이 충분치 않았다. 지금도 서양의 방법론을 배우는 데에만 급급한 수준이다. 결국 동양의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학문이 가야될 길이라고 본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면 전통마을숲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내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생태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 성장과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내용이 거기에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통생태학 연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임경수 박사(환경계획, 94)가 후주의 퍼머컬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는 나에게 환경대학원 학생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 그들을 초청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화가 났다. 그 내용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사롭게 하시던 방법들인데 그것들을 몽땅 버리고 이제는 어렵게 영어로, 그것도 우리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 처량했다.

결국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것은 버려야 할 것, 서양의 것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2001년 8월 미국 생태 학회에서 우리 전통생태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이전의 다른 어느 발표 보다 호응도가 훨씬 높았다. 그래서 전통생태학은 내가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나는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전통생태를 직접 경험하며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전통 생태 연구는 학생들의 도움이 없거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연구분야이기도 했다.

아직까지 전통생태학에 대한 중요성 또는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 연구가 쉽게 확대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 분야 연구를 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도 않다. 교수로서 일자리가 없으면 학생들에게 이 분야 연구를 권장하기가 어렵다.



Q6. 교수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이 피드백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지만 남는 게 많은 수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학생들의 교수님 강의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집중과 몰입이다. 내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내 수업에 들어오면 한 달 동안은 다른 강의는 모르겠다. 내 강의에 너희들이 들어오도록 몰아붙인다.' 고 이야기 한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뭐든지 일을 풀어가려고 할 때 그 주제의 껍데기만 보는 수준이라면,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깊이가 금방 드러난다. 이 학생이 얼마만큼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느냐, 그 분야 전문가라면 당연히 금방 알게 된다. 그 말은 그렇게 알아보기 싫으면 깊숙하게 들어가야 하고, 그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학생들은 문제를 붙들었을 때, 애정을 가지고 정말로 남들보다 깊이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예를 들면 자신의 논문 주제에 대해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학생 자신이 가장 깊게 고민하고, 또 알고 있어야 한다. 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Q7. 퇴임 후에도 수업을 5년까지 더 하실 수 있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이번학기를 마지막으로 수업을 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권태준 교수님이나 김형국 교수님도 퇴임 후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하시고는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고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안다. 학생들이 내 수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마음이 교수일 때와 명예교수가 되었을 때는 똑같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더 이상 학생들을 평가하고, 체질하기가 무척 싫다.

Q8. 환경대학원은 통합적 혹은 융복합적 학문을 지향하고 있는 학교이고, 우리나라 도시와 환경 이슈에 대해 많은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대학원이 세워진 초창기에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1973년 환경대학원을 세운 발상은 상당히 선구적이었다. 그러나 개념적인 것을 바탕으로 환경대학원을 만들었지만 그 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약했다고 본다. 교수님들도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 서양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던 대학교들과 비교할 때 연구 방법론 부분에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 또는 공부하는 학생 때 많이 경험해야 한다. 교수가 되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가 된 다음에는 그런 공부를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면 새롭게 익히고, 그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연구방법론을 개발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대학원 초창기(아마도 70-80년대 학번), 교수들이 학생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전공 사이에 벽이 없었다. 그 당시 학생들의 말대로 자기들을 방목을 하니까 오히려 서로 모여 세미나도 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세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 같은 교수가 환경대학원에 많아지면서 연구실 중심으로 공부를 챙기다 보니 학생들이 남의 것을 쳐다볼 틈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전공 사이의 벽이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2001년에 환경계획·설계 수업을 만들어서 전공별 벽을 허물어 보자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환경대학원의 설립 취지와 개념은 매우 좋았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론이 미흡했던 셈이다. 이제 각 교수 연구실별로 정말 세부 분야에서 최고인가를 먼저 질문해 봐야 할 것이고, 통합적 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연구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해 봐야겠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현재 상태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시각이 기우에서 비롯된 것이면 좋겠다.



Q9. 25년 동안 교수로 지내시면서, 대학원장 혹은 기관장 등 리더의 자리를 유달리 사양하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그 뒷면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내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시절이었는데, 그 무렵 서울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었다. 휴지 대신 짚이나 헨 빗자루를 문질러 뒤를 닦았다. 당시 우리 동네에서 공부를 잘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있던 한 살 위의 선배가 있었다. 중학교 진학을 못한 그 선배를 안타깝게 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내가 6학년 2학기 때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 선배는 사형제의 셋째였는데 둘째 형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집에 가면 책들이 많았다. 그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나한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 집에서는 가끔 오래된 책을 화장실에 두고 휴지대용으로 한 장씩 뜯어 쓰곤 했다. 어느 날 화장실에 앉은 시간에 반쯤 뜯거나 잔 책을 보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정적들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묘사하는 하는 내용을 읽었다. 물러난 대통령을 비방한 내용이지만 쉽게 말하면 불온서적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 책을 읽으면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정치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학 졸업 후 군대 3년과 직장생활 2년을 보내고 석사과정에 진학했기 때문에 늘 늦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눈 팔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공부와 상관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작심했다. 결국 환경대학원 원장을 하면서, 그때까지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배운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전통생태 집담회 모임이 그렇다. 대학원장을 하는 동안 내가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모임은 환경대학원에서 멀어졌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학술 모임이 유지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Q10. 평소 <환경계획 및 설계>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환경대학원 선배로서, 또 교수로서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은 특별히 우리 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해도 이것이 실천이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시도를 안 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도하고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 바람이 실천될지 모르겠다. 먼저 교수들끼리 학문적으로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전공자들을 모아 놓고, 환경대학원 안에서 학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학부에서 가까웠던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환경대학원에서 다른 교수들과 학문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이 적다. 물론 나도 그랬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왜 환경대학원이 있어야 하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조직을 만들 때 또는 조직을 분리할 때, 내부 구성원들끼리 더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더 자주 또 깊게 교류하고 소통해서 반응해야 한다. 다만 특정 그룹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서로 다양한 반응을 하기 위해 외부와도 소통하고 교류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만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쩔 수 없이 내부적 반응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환경대학원 분위기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요컨대 우리 내부, 한 울타리 안에서 먼저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회의도 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것이 충분한 다음 외부활동이 뒤따르는 수순이 합리적이다.

Q11. 퇴임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하나는 전통생태 영어 책을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단길을 좀 더 천천히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해 보는 것이다. 이미 다녀온 길이지만 빨리 보는 것과 머물며 보는 것은 다르다. 지금까지는 대강 봤고, 지금부터 체력이 있는 한 천천히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이게 실현되면 앞으로는 한국에서 보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웃음).

Q12. 마지막으로 환경대학원에서 25년간 교수로서 행복하셨는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학생들에게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2/3는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꿈꾸던 것을 애써서 하려고 했다간 다치겠다.'고 한탄한 적도 있다. 말년에 내가 많은 것을 체념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부터는 남들도 나를 대하기가 편해졌을 거다. 계속 뭔가 내 학문적인 착상을 실현하기 위해 몰아붙였다면 학생들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젊은 교수시절 내가 잘못된 것도 있고 배려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결국 같은 내용인데, 자신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만족한 수준으로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아주 특별한 천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때문에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이것만은 내가 최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공동연구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아는데, 어느 것도 나보다 잘하는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별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과 공동작업을 하기가 수월해진다. 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대학원 학생들은 일반대학원 학생들보다 폭이 넓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엇을 최고로 잘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환경대학원에 있더라도 이거는 내가 최고이고, 다만 이것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익혀두면 된다. 그런데 이것저것 조금씩 한다면, 결국 내가 최고인 게 없다. 연구에서도 자기중심이 있어야 하고, 삶에서도 중심이 있어야 한다.

Special Sessio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대내외 많은 관심 속에 1968년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개설하고, 1973년에는 비로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다. 4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의 환경대학원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사회 각 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경제는 정체되어 있으며, 정치는 불안하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환경대학원과 학생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본 Special Session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환경대학원의 전통과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향후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수님들의 생각을 엿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과거 환경대학원 개원의 주축이었던 노용희 교수님과 권태준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본 내용은 지난 2013년 환경대학원 4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환경대학원 역사서「우리나라 국토·도시 이야기」중 일부를 발췌, 각색하였다.

1. 환경대학원 개원과 환경학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

대담자 | 노용희 명예교수 / 사회자 | 김창석 교수

환경대학원의 뿌리,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의 개원

김창석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대학원을 직접 개원하신 은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대담은 환경대학원의 개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개된 적이 없는 야사를 포함하여 사실에 근거한 생생한 증언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환경대학원은 물론 그 모태가 된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도 창립하신 분이어서 먼저 그 창립 배경부터 말씀부탁드립니다.

노용희 교수 196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개원하게 된 계기는 한 해 전인 1967년 당시 행정대학원 원장이었던 이한빈 교수가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열린 'Pacific Conference on Urban Growth'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좌장으로 초청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귀국한 다음날 오전에 원장실에서 자기는 그 세미나에서 '도시화'라는 새로운 사회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노라고 말하더군요.

그 시절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발 열기가 고조되면서 계획 전공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당시엔 계획을 가르치는 학과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건설부장관이었던 주원(朱源) 장관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도시계획 석사과정 개설을 타진했는데, 반응이 소극적이었다고 해요. 이런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 이한빈 원장이 “행정대학원이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해보겠다.”고 말하고 원장실에 돌아와 나하고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지요.

그 일이 있던 며칠 후인 1967년 10월 어느 날 건설부장관실에서 이한빈 원장, 나, 권태준 교수 세 사람이 장관을 만났는데 주원 장관께서 당장 내년 1학기부터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학과 개설 작업은 내가 책임을 맡고 곧바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어요. 우선 그 당시 법과대학의 권태준 교수를 행정대학원으로 이직시켜 같이 일을 추진했죠.

김창석 교수 그 당시 학과를 개원하시는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요?

노용희 교수 학과를 개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들은 교육법시행령 속에 도시계획분야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했어요. 그 시절의 문교부(현 교육부)는 도시계획학 학위를 주는 학교가 어디 있냐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득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지요. 어렵게 문교부를 설득하고 나니 이번엔 대학본부가 학과 개원에 소극적이어서, 주원 장관께서 최문환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문교부의 학과 신설 허가가 나오자 대학본부는 반대하진 않았지만, 책정된 예산이 없어 재정지원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요. 대학본부의 지원은 겨우 동승동 서울법대 옆 중앙공업연구소 안에 있었고, 한 때 물리학과가 쓰다가 그 후 문리대 무도장(武道場)으로 쓰던 자그마한 노란색 2층 건물이 전부였어요.

예산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종합기술공사 대표로 있던 건축가 故김수근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시 김수근 씨는 주원 장관으로부터 학과 개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노용희 교수를 좀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노라 하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오셨어요. 결국 그분의 도움으로 일단 학과 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색은 갖추게 되었지요.

김창석 교수 건축가 김수근씨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개설에 필요한 시설비를 후원했다는 점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도시계획분야처럼 새로운 학문분야의 학과를 개원할 경우 물리적 시설을 갖추는 일 뿐 아니라 교수요원 확보, 교과과정 개발, 학생선발 등 소프트웨어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노용희 교수 교수요원 확보가 가장 중요했는데, 외원기관에서 장학금을 조달해서 총 7-8명을 몇 년에 걸쳐 유학을 보냈어요. 그 때 뽑힌 사람들이 권태준, 황명찬, 최상철, 김안철, 홍성철, 안문석, 김형국씨 등이었어요. 교수요원 확보 계획은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당장 그 다음해 2월부터 학생을 뽑아야 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당시 평화봉사단(Peace Corps)요원으로 입국한 미국인 가운데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뽑아 쓰자는 거였지요.

입학생을 뽑는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 지방 6급 공무원을 2부 야간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시절에는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서울대학교에 유학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었는데, 당시 내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와 관계가 깊어 내무부를 설득했어요. 당시 엄민영 장관께서 좋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하시기에 2년 동안 서울 내무부 본부에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했지요. 그들의 학비도 문제였는데, 이 또한 내가 아세아재단에 가서 부탁했더니 자기들이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저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방공무원들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었지요. 1부 과정(주간과정)은 당시에 동일계열이 아니면 대학원 진학이 불가능했던 시절이라 어렵사리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 토목 등 공학 분야는 물론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계열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게 문호를 넓혀 놓았지요.

또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포드재단의 도움을 받아 1968년 1년 동안 피츠버그대학에 가서 미국 내 20여 개 대표적인 대학들을 순방하며 그들이 뭘 가르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고 왔어요. 그 때 얻어온 커리큘럼 등을 토대로 권태준 교수, 최상철 교수, 김안철 교수와 함께 교과과정을 만들었는데 문교부를 설득시키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행정학 석사가 아닌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수여하려면 교육법 시행령에 학위 명칭을 새로 넣어야 하는데 꼭 2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제1회 입학생은 졸업식 직전까지도 졸업장에 학위 명칭을 쓰지 못하고 빈칸으로 있었어요. 졸업식 이틀 전인 1970년 2월 24일에야 비로소 박정희 대통령 결재가 나서 부랴부랴 학위명을 써넣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었지요.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물리적 계획가들로부터 편견이던 눈으로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계획분야 석사과정이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개원

김창석 교수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다음은 1973년 환경대학원을 개원하게 된 배경과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로서는 대학원이나 학과 명칭에 '환경'을 붙이는 것이 꼭 생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환경대학원'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는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노용희 교수 어느 날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던 오형영씨가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어요. 그는 조경학 전공자로서 청와대에서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산지절개 등 자연훼손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공분야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환경문제를 공해문제로만 보지 말고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설계, 조경학, 환경관리, 공해관리 등 5개 전공을 개설하는 안을 제안했어요. 그때 나는 그러한 학과를 포함시키는 대학원을 '환경대학원'이라고 칭하면 좋겠지만 이는 문교부에서 거부할게 분명하므로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더니, 대학원 명칭 문제는 자신이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하면서 대신 환경관리, 공해관리 전공은 빼자고 하더군요. 그 회동 이후 나는 서울대학교에 신설 대학원 개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회의를 거듭하면서 '환경관리'와 '공해관리' 전공은 제외시키되, 학과 명칭과 대학원 명칭에 모두 '환경'이라는 접두어를 넣기로 최종 결론을 냈지요.

이렇게 해서 좀 아쉽지만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 두 전공만으로 1973년 3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발족을 보게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환경대학원은 행정대학원 시절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 조경학과 하나를 덧붙인 셈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김창석 교수 그 시절에는 환경문제를 곧 공해문제로 인식하던 때인지라 환경이라는 표현에조차 그처럼 민감했었나 봅니다.

노용희 교수 그랬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차 경제개발을 시작한 1970년대 초까지 '공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민간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일체 거론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 했어요. 그런 상황이니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학 학과 명칭에 쓰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과와 대학원 명칭에 '환경'을 붙인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해요.

환경대학원에 바라는 말

김창석 교수 앞으로 환경대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끝으로 한 말씀 조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희 교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라고 하는 게 대부분 서구문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근대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많이 연구해 봤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못 키워온 게 서구문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서구문명이 초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학기술 분야별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극복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일 텐데 그렇게 하려면 역시 동양적인 사상이 뒷받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 환경대학원이 앞장서서 자연과 환경,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동양사상적인 자연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2. 환경대학원 개원과 발전과정 회고

대담자 | 권태준 명예교수 / 사회자 | 이덕복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설립 배경과 목적

이덕복 박사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본 대담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대담에서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1968년 1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개설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모태로 하여 1973년 환경대학원으로 발전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대학원 교과목 구성, 특히 선생님께서 담당하셨던 계획이론, 계획과정론, 사회개발론, 도시사회이론 등이 우리나라 도시학, 환경학을 종합학문, 실천학문으로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간의 노력 등에 대한 회고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73년도에 환경대학원이 전문대학원으로서 독립기관으로 출발했지만, 68년도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거슬러 올라가야 얘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개원 태동 때부터 재직하셨고, 또한 도약기와 성장발전기에는 환경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핵심적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준 교수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자리에 정년퇴직한 교수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무척 의미 있는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는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 합류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정확히 68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행정대학원 원장이시던 이한빈 박사께서 만나자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대학원에 도시계획 관련 학과를 만들고 싶는데 당신이 좀 와서 도와 달라.”는 아주 의외의 제안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내 전공이었던 행정법 분야에서 ‘토지이용계획법’이란 강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법과대학에서 그런 과목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과목이어서 호기심에 끌려서 한 학기 수강을 했지요. 나의 그런 전력을 아는 한 교수가 아마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한빈 원장에게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참 우연이기는 하지만 나로서는 한국에서 도시계획법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다 싶어서 법과대학을 떠나기로 했지요.

서울대학교 본부에 도시계획관련학과를 개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어요. 나도 법과대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지요. 서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지역계획 관련학과 설치에 관한 심각한 심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68년에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대학원 레벨의 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학과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가 최초이고, 내 기억으로는 학부 레벨에서 동아대학, 한양대학, 홍익대학에 주로 건축학 관련 교수들 중심으로 도시설계 위주의 학과가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새로 생긴 학과는 전임교수가 노용희 교수와 나 둘뿐인 학과로 출발하였어요. 이 새로 생긴 학과의 정식 명칭을 정하기 위해, 노용희 교수와 함께 미국 대학들의 관련 분야 학과 이름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또는 Department of city planning 등 많았는데, 당시 한국의 형편에서는 도시계획만으로는 연구와 교육의 범위가 좀 좁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들 가운데 간혹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이라는 학과도 있기에, 그것을 택해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명명해서 간판을 달았어요. 처음 간판을 단 곳이 옛날 동숭동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법과대학 옆 임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대학 건물 뒤편 2층짜리 임시 건물이었습니다. 첫해에 선발한 학생 수는 주간 반에 한 스물 넷 명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야간 반도 있어서 우리 학과도 야간 반을 주간 반에 조금 못 미칠 정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의 커리큘럼은 주로 미국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커리큘럼을 거의 베껴 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도시계획, 계획과정론, 지역경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이 중심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용희 교수와 나는 이런 과목의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행정대학원으로 옮기기 전 법과대학에서는 행정법 전공 교수였는데, 당시 법과대학에는 도시 또는 국토계획과 관련된 법학 과목이 없었어요. 노용희 교수도 알다시피 지방자치행정전공 교수였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외래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UNDP 자문관 자격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들이 몇 사람, 그리고 지역 경제 같은 것은 경제학자 중에 지역 문제를 조금 다룬 분들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회, 2회 졸업생, 아마 한 3회 졸업생까지는 외부 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는 중에 내가 도시계획법을 공부한 경험도 있으니 계획과정에 관한 과목은 내가 가르쳐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UNDP 자문관이었던 터키사람이 ‘planning theory’라는 것을 강의했는데, 통역 비슷하게 한 학기인가 두 학기를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스스로 자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째 즈음 되면서부터 내가 자료와 교재를 모아서 조그마한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로 미국, 영국에서 출판된 그 분야의 논문들을 모아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한국에서 대학원 레벨에서 ‘계획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강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거의 전직으로 시간강사에 의존해서 몇 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끝에, 우리가 직접 전문가를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교를 하던 사람들과 외부에서 지명하는 몇 사람들을, USOM 또는 아세아 재단(Asia Foundation) 등의 미국 원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양성프로그램'(Faculty Development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게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1차 유학생들 가운데, 지금 환경대학원에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최상철 교수, 김안제 교수, 임강원 교수 등입니다. 그리고 이어 김형국 교수, 양병이 교수 등입니다. 이 몇 분들이 오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주춧돌입니다. 이 '교수양성 프로그램' 출신들은 이제 모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차츰 우리가 보냈던 faculty 양성프로그램 출신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하고는 서로 강의 수강도 별로 없었고 교수들 간의 소통도 별로 없게 되어서, 인젠가는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어, 대체로 70년대 초부터 우리는 독립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1973년 무렵인가 청와대에 조정담당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생겼는데, 대통령실의 이런 변화가 서울대학교에 조정학과를 포함한 '환경대학원'을 만들 수 있게 된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를 처음 개설했을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던 것도,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봅니다.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와 환경대학원이 우리나라 국토 발전과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가 한국 경제발전 역사상 처음으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이어 67년부터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국토계획 중에서 정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요 관심이었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관심이 지역개발에 쏠리기 시작하면서, 서울 밖에 있는 도시들도 "우리로 개발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이한빈 원장을 위시해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들로 하여금 이 분야의 좀 더 폭넓고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70년대 초 무렵부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부 특히 청와대에서 경주 같은 옛날 고도에 대한 보존과 문화적 정체성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일반시민들도 차츰 산림보호라든지 공원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정치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에, 조정학과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합쳐 전문 대학원을 만들기로, 서울대학교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3년에 '환경대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앞으로 이 분야가 크게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선진 산업국들에서 대개 70년대 초부터 공업 생산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한국의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감히 '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도시학, 환경학의 패러다임 변천과 정체성 확립

이덕복 박사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시작하여 환경대학원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그때까지 물리적 측면에 머물렀던 환경학, 도시학을 사회 과학을 토대로 미래학, 계획학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학술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학, 환경학을 '사회과학을 토대로 한 종합학문 실천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웠던 일이나 특기할만한 얘기가 있으면 환경대학원 커리큘럼이나 선생님께서 강의하셨던 계획과정론이나 사회개발론 등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준 교수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설치하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전공교수가 없었다는 것과 또 하나의 문제가 학위 명칭이었어요. 전공 학위 명칭 없이 학과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도시계획학석사'라던가 '지역계획학석사'라던가 하는 학위 명칭을 만들려고 하였지요. 지금은 학위 명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교육법 시행령에 학위 명칭이 전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위 명칭을 새로 만들려면,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그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중심이 되는 인문대, 사회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에서 interdisciplinary 전공을 나타내는 학위 명칭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대단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도시(및지역)계획학 석사를 신설하려고 노력했고, 환경대학원 설치 이후에는 환경학 석사, 환경학 박사로 우리만의 특수성을 알리는 그런 학위 명칭을 신설하려고 몇 년간 노력했습니다. 환경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만들려고 할 때도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이런 분야의 박사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학문적인 깊이가 있기 어렵다는 식의 반발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심지어 대중매체들까지 융합과학적 접근이 21세기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석급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깊이 들어갈수록 세분화하고 세밀하게 영역을 정해서 전공을 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요.

이런 풍토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와 환경대학원은 우리 학문 발달뿐만 아니라 실무기술의 사회적 기여에서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제간 커리큘럼, 융합과학적 커리큘럼(교과과정)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만큼 일찍 만들어진 곳은 없습니다. 학과의 학생들 전공배경의 소위 '동질성' 같은 것은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융합과학적 또는 학제간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학생입학과 교수채용을 장려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학생들을 보면 알겠지만, 대학에서 이공학을 한 사람에서부터 인문학을 한 사람들까지 함께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환경대학원이 한국사회에서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실무기술개발에도 남다른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대학원에는 더욱이 조경학과라는 것이 한국 최초로 석사과정에 생기게 되었고, 이 졸업생들이 전국 각지 대학들의 조경학과 창설자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한국의 도시계획, 조경학, 도시설계 그리고 환경관리전공, 교통전공 등 분야의 학술 및 연구기관의 선구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내 기억으로 1978년 무렵 지금의 '국토연구원'이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개원하고 그 초대 원장으로 당시 환경대학원 원장이던 노용희 교수가 취임했고, '서울연구원'이라는 곳도 초대원장이 최상철 교수였고, 이어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출신인 권원용 박사가 취임했지요. 정부에도 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출신들이 전문 실무능력의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이쯤에서 이 박사가 물어본 내 전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 전공은 본래 법학(행정법)이었고 그것만으로는 이 새로운 분야에서 별로 기여할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던 터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시절 이한빈 원장의 권유로 다시 유학을 해서 새로운 전공을 해보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립대학 정책학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거기서 policy making process를 연구해서 새로운 전공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 환경대학원에서 30여 년 동안 '계획이론', '계획과정론' 등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회개발론, 도시사회이론 등은 여러 사회과학 분야이론들을 응용하는 식의 과목들이고, 사회현상의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 박사과정에 설치한 과목들입니다. 나의 새로운 전공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에서, 나도 환경대학원과 같이 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성장시대 도시학, 환경학의 미래와 환경대학원의 역할

이덕복 박사 우리 환경대학원이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출발해서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거기에서 도시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처방을 하는데 상당한 사회적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도시학, 환경학은 지난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변화과정을 촉진한 학문일 수도 있고 그 부작용을 치유하려는 학문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융합하려 한 것이 환경대학원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고, 이미 도시화는 다 이루어졌고, 고령화, 인구 정체,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기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학, 도시학의 나아갈 방향과 환경대학원의 역할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권태준 교수 장래를 10-20년 길게 내다보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과 같은 국가 사회의 발전과정은 이제 서서히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업단지, 도시 전체 구조 개혁, 지역 간 균형개발 같은 대규모의 개발 사업은 이제 국가 사회적인 필요도 별로 없을 것이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봤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그만한 재정적 지원도 얻기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 앞으로 도시 또는 지역 그리고 환경 문제는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변화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직접 받는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동시에 자기 지역, 자기 도시, 자기 마을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적 국토구조에 관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개입할 능력도 줄어들면 점점 더 각자 자기 지방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것입니다. 환경대학원 졸업생들은 이제 각자 일선 지방주민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의 도시, 환경 관련 학과들과의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학생들 자신들이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도 각 지방 주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컨대 과거와 같은 거시적 안목과 태도 보다 한 층 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태도에 숙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2017-2018 / 34기 모집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교육 지식공동체입니다

주변의 뜻있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정 | 2017년 9월 - 2018년 3월 (6개월, 주1회(목) 야간과정)
자 격 | 관련분야 실무전문가, 임원, 시민단체, 공무원, 단체장 등.
접 수 | 2017년 8월 25일(금) 마감
출범식 | 2017년 9월 21일(목) 예정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http://gses.snu.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접수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행정실
전화 02-880-8525 이메일 snusgs@s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년 상반기 뉴스레터

환경대학원 신임 원장 인사

-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 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7 시민정원사

- 동문소식**
- 8 동창회
 - 9 동문동정

정년을 맞이한 이도원 교수 인터뷰

Special Session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4기 모집 안내



발행인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담당교수 윤순진

학과조교 강태석 노초원 윤병석 이승지 임동민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박선미 이지원 E-Design 흑석동직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